

KOREA

우리 국토의 모습

3



영역과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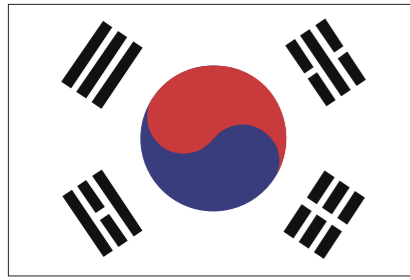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동아시아의 동안에 자리한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워 왔다. 우리의 영토와 영해는 고대 이래로 한민족의 생활 터전이었으며, 한민족이 세운 많은 나라가 굳게 지켜온 활동 무대가 되어 왔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서 총면적은 약 22만 3천 km²이다. 북쪽으로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중국과 접하며, 동쪽으로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하고 있다. 영해는 해안 및 최외측 섬을 연결하는 선으로부터 12해리 선까지를 그 범위로 한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서는 해안으로부터 12해리까지, 대한 해협에서는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북위 33°와 44° 사이에 위치해 있어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며, 경도상으로 동경 124°에서 132° 사이에 위치하여 표준시는 본초 자오선이 지나는 영국보다 9시간이 빠르다. 또한 국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으로 대륙과 해양으로의 진출에 유리해 과거부터 해양을 이용한 교역이 매우 활발하였다.

국제 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국을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표상을 국가상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으로는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무궁화(국화), 나라 도장(국새), 나라 문장 등이 있다. 이 다섯 가지를 통상 5대 국가 상징이라 한다. 이 외에도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삶에 스며들어, 내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떠올리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되어 있다. 흰색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상징하며,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과 양의 조화로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뜻한다. 4괘는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뜻한다.



애국가

애국가(愛國歌)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달리 이름을 붙이지 않고 국가(國歌)로 사용하고 있다. 1900년대 초에 쓰여진 노랫말을 스코틀랜드 민요에 붙여 부르다가 1935년 안익태 선생이 작곡하여 오늘날의 애국가가 되었다.



무궁화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 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다. 7월 초순에서 10월 중순까지 매일 꽃이 피고, 보통 한 그루에 2천~3천여 송이가 핀다.



나라 도장

옛날에는 어보, 어새, 옥새, 국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졌지만 현대에는 국새로 부른다. 국새를 찍는다는 것은 나라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의미로 헌법 개정 공포문의 전문,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 공무원의 임명장, 외교 문서, 훈장증 등에 사용한다.



나라 문장

우리나라 문장은 태극 문양을 무궁화 꽃잎 5장이 감싸고 '대한민국' 글자가 새겨진 리본으로 그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다. 외국 기관에 발송되는 중요 문서, 훈장 및 대통령 표창장, 재외 공관의 건물 등에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김치



한복



태권도



한글

대한민국 인구와 면적



인구
51,829,136명

남자 25,915,207명 (외국인 제외, 2020년 기준)
주인 등록 인구 통계 (외국인 제외, 2021. 12. 31)
51,638,809명

여자 25,913,929명 (외국인 포함, 2020년 기준)
남자 25,746,684명
여자 25,829,125명
북한 인구 2,537만 명 (2020년 말 기준)

통계청(2022)



면적
100,412 km²

대한민국 총면적 223,626 km²
일야 63,558 km² (63.3%)
담 11,099 km² (11.1%)
전 7,555 km² (7.5%)
남한 100,412 km²
도로 3,386 km² (3.4%)
북한 123,214 km² (통계청 2020년 기준)
대지 3,243 km² (3.2%)
하천 2,862 km² (2.9%)
기타 8,635 km² (8.6%)

통계청(2020)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극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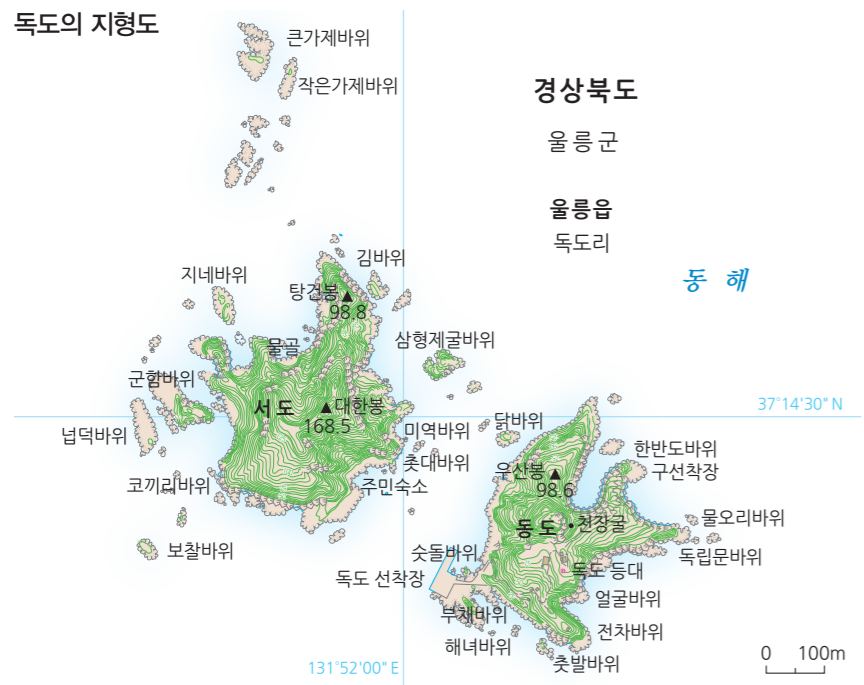


독도



독도의 전경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서 대한민국 동쪽 끝, 동해의 중심에 있다. 동도와 서도,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진 독도는 동해 2,000m 아래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하부 지름이 30km에 이르는 대형 화산(독도 해산)의 일부이다. 형성 시기는 대략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제주도, 울릉도보다 앞선 것이다.



독도의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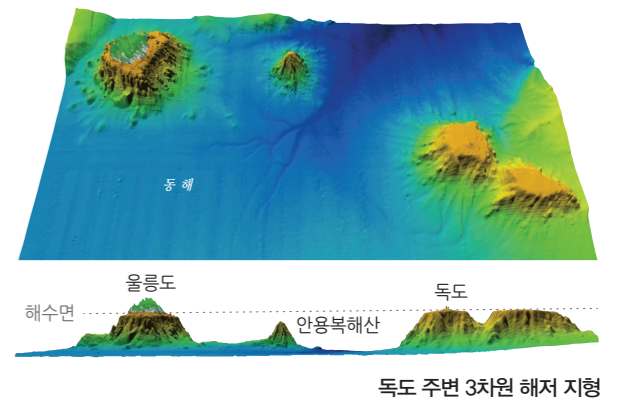


독도의 모습



독도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dokdo.go.kr

한류와 난류의 교차로인 독도의 주변 해역은 동·식물 플랑크톤이 풍부하며, 육지와 멀리 떨어져 인간 활동의 영향을 덜 받는 청정 수역으로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에 유리하다. 이곳은 오징어를 비롯한 어류와 해조류 등이 풍부해 어업 해역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태평양을 향한 해상 전진 기지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독도 주변 3차원 해저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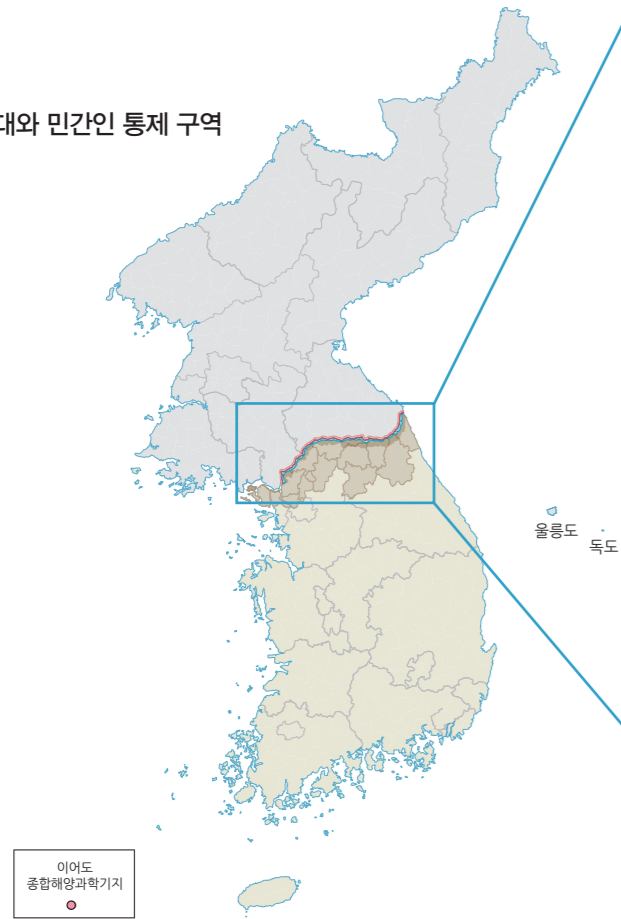
독도의 생태계는 독특하다. 동북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바다제비, 갯가래기 등 다양한 조류를 만날 수 있고, 울릉도와 독도에서만 자라는 섬피불나무 등 희귀 식물종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곳을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와 87.4km 떨어져 있어 울릉도의 여러 지점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예로부터 울릉도민의 생활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해서 입법·행정·사법으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이 상주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군대가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며, 등대와 접안 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독도에 거주하며, 독도에 입도하거나 선회 관람한 사람 중 신청자에게 독도 명예 주민증도 발급하고 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한 독도의 도로명 주소는 국민 공모로 선정했고, '독도안용복길'과 '독도이사부길'이 사용되고 있다.



휴전선과 DMZ

비무장 지대와 민간인 통제 구역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휴전선인 군사 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으며,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2km, 총 4km 구역을 비무장 지대(DMZ, Demilitarized Zone)로 설정하였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무장이 금지된 완충 지대로 군대 주둔과 무기 배치, 군사 시설 설치 금지되는 지역이다. 민간인 통제 구역은 비무장 지대와 민간인 통제선 사이의 구역으로, 고도의 군사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군사 분계선 인접 지역으로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지정하였다.

2018년에는 남북 정상 간 합의 및 부속 합의 등을 통해 DMZ 평화 지대화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비무장 지대를 실질적 평화 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무장 지대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접경 지역의 번영·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DMZ 평화의 길'을 추진하고 있다.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DMZ와 접경 지역을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강화부터 고성까지 11개 테마 노선을 조성하였다. 'DMZ 평화의 길' 도보 여행을 통해 비무장 지대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휴전선과 판문점



판문점 JSA



돌아오지 않는 다리



DMZ 일대 지뢰 표지판



제3땅굴 앞 조형물

DMZ 평화의 길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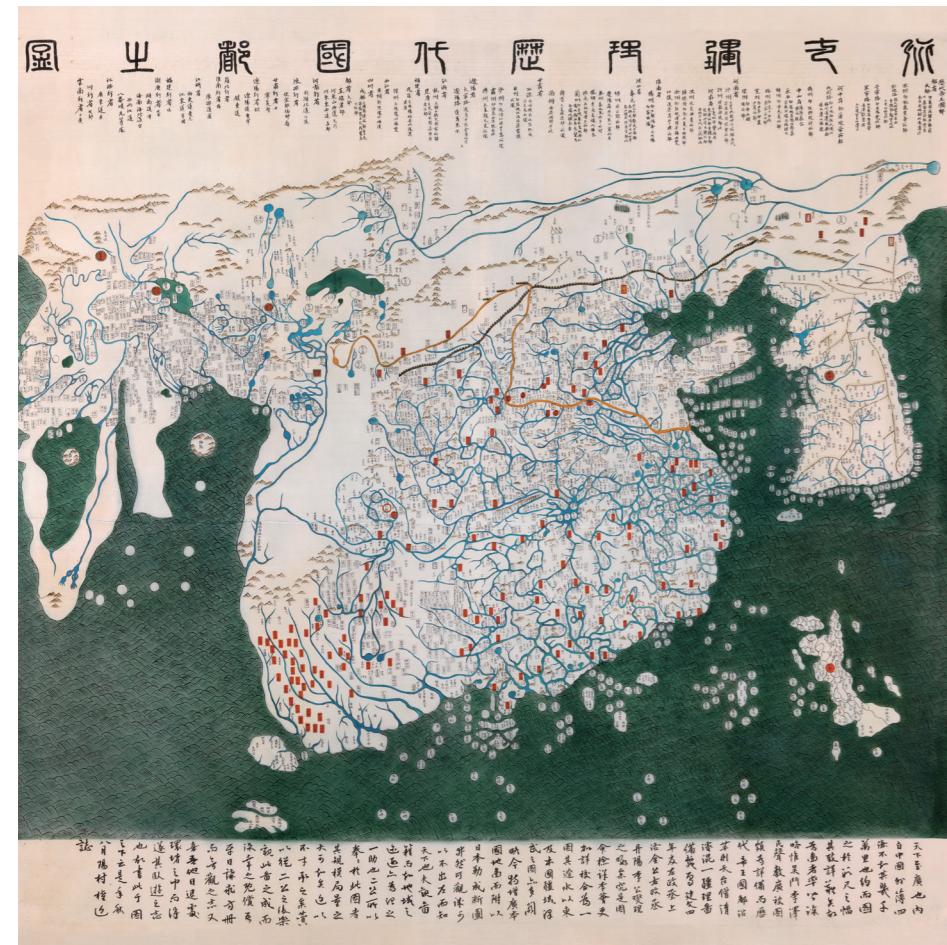


비무장 지대 주변의 동물 분포



비무장 지대(DMZ) 일원은 일반인의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 지역으로, 다양한 자연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로 포유류와 조류의 생물 다양성이 높고,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의 서식 밀도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DMZ는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생태 벨트로 산림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를 비롯한 하천, 습지, 계곡 등 다양한 생태계가 나타난다.

고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권근 외, 1402년, 채색 필사본(일본 류코쿠대학교 소장본의 모사본), 158.0 × 168.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지도의 중앙에는 중국, 동쪽은 조선과 일본, 서쪽으로는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구대륙 전역을 포괄하고 있다. 아라비아 서쪽 지역은 원나라 때 유입된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으로 그려졌으며, 아프리카 대륙을 온전하게 표현한 최초의 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천하도 天下圖
18세기 후반, 채색 필사본, 85.6 × 61.9cm,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한민족의 삶의 터전인 영토는 전근대 시기에 제작된 고지도에서도 표현된다. 이는 한민족이 오랜 세월동안 살아오며 형성된 영토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우리나라를 그린 지도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 고을 지도 등 다양한 지도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의 역사는 삼국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남아 있는 지도는 조선 시대 이후의 것들이다. 현존하는 고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지도로는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들 수 있다. 이 지도는 당시 제작된 세계 지도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지도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지도를 보면 중화적 세계관에 기초하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던 당시 개방적인 태도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조선이 아프리카보다 크게 그려지는 등 중국에 버금가는 문화 국가로서의 자부심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세계 지도들도 당시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보여 준다. 실재하는 나라들과 가상의 나라들이 혼재되어 그려진 「천하도」, 지도의 중앙 경선을 태평양 중심에 둔 「천하도지도」, 오세아니아 대륙이 남극 대륙과 분리되어 그려진 「지구전후도」 등이 대표적이다.

15세기에는 국토의 측량을 기초로 한 조선 전도의 제작이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전도로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를 들 수 있다. 이 지도는 지지를 보완하는 부도(附圖)의 성격으로 수록된 내용이 간략하나 울릉도·우산도(지금의 독도), 흑산도와 같은 섬들이 강조되어 그려져 우리의 영토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왜란과 호란의 양대 전란을 겪은 후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지도가 제작되면서 우리의 영토를 개성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18세기 중엽에는 조선 후기 지도 역사에서 분수령이 되는 정상기의 「동국대전도」가 제작되었다. 이 지도는 약 42만분의 1의 대축척 지도로 백리척(百里尺)이라는 독창적인 축척이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의 영토는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이르러 완결된 형태로 묘사되었다.

지도 제작의 흐름은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개항 이후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근대적 측량 기술을 접하고 삼각 측량으로 지도 제작을 시도했다. 당시 지리 교과서로 집필된 「대한지지」나 「대한신지지」에는 경위선 좌표 체계에 기반한 전도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장지연의 「대한전도」에는 당시 우리 민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북간도가 우리의 영토로 그려져 있다. 우리의 영토를 그리려던 노력은 1910년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면서 단절되었다.



천하도지도 天下都地圖
18세기 후반, 채색 필사본, 60.0 × 102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지구전후도 地球前後圖
최한기, 1834년, 목판본, 전·후도 각각 37.0 × 37.5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 전기



팔도총도 八道總圖
16세기, 목판본, 28.5 × 34.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 후기



조선방역지도 朝鮮方域之圖
제용감(濟用監), 1557년, 채색 필사본,
132.0 × 61.0cm,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국보 제248호



동국대전도 東國大圖
정상기, 18세기 중엽, 채색 필사본,
272.7 × 147.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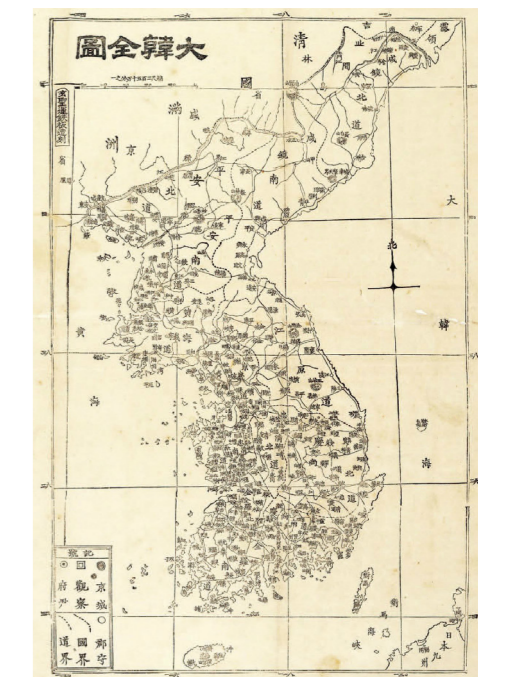
아국총도 我國總圖
18세기 후반, 채색 필사본, 152.5 × 82.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해좌전도 海左全圖
1850년대, 목판본, 105.9 × 61.2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김정호, 1861년, 목판본, 각종 30.5 × 171.5cm
(총 22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한전도(大韓全圖),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
장지연, 현성운, 1907년, 33.7 × 25.0cm,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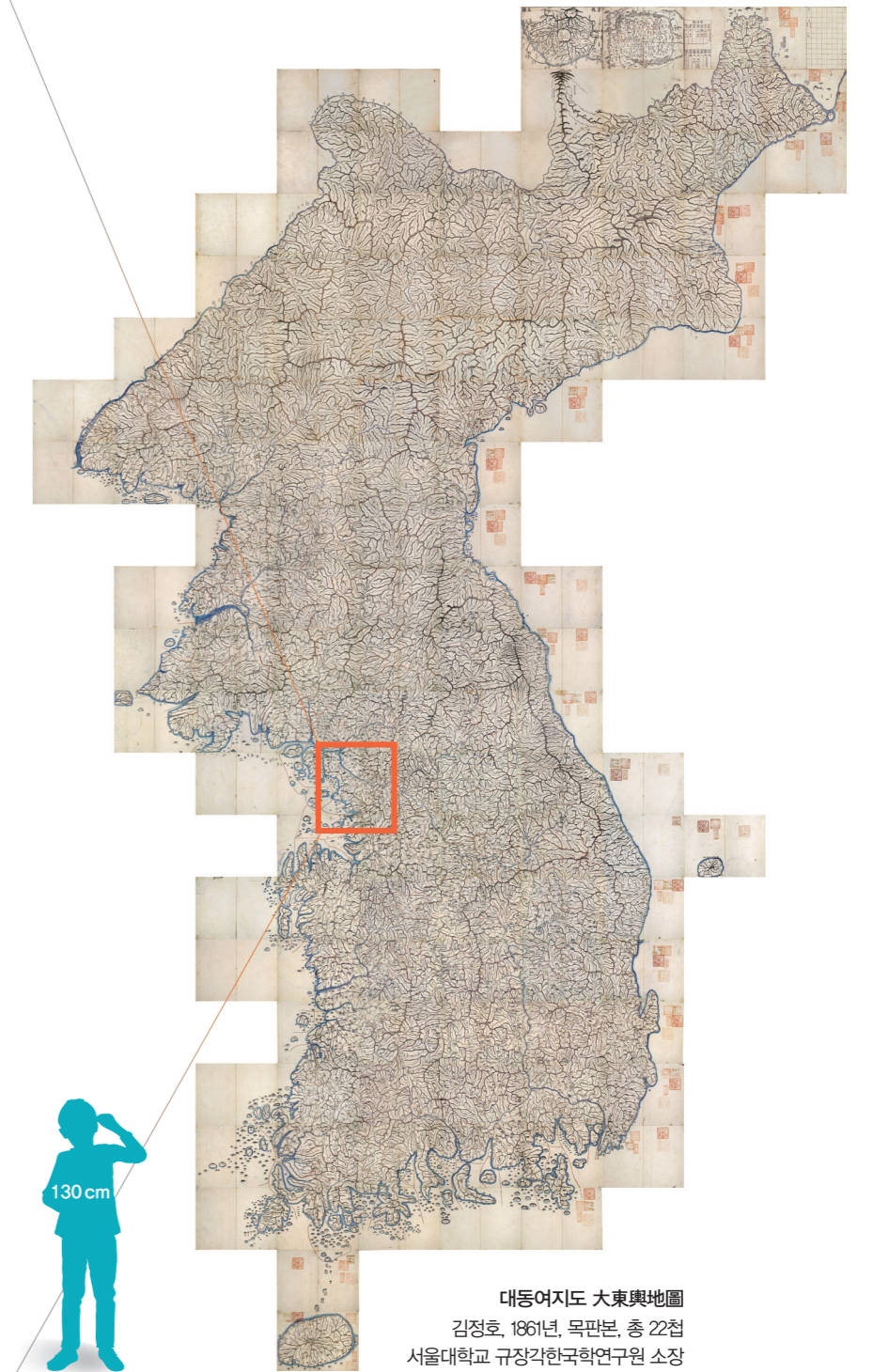
지도는 한양 주변을 나타낸 것이다. 산줄기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산은 산이 가진 특성에 맞게 표현되어 있다. 백두산과 한라산은 천지와 백록담을, 금강산은 1만 2천 봉을, 삼각산은 3개의 봉우리를 표현하였다. 물줄기는 곡선으로 표현하였는데, 쌍선과 단선으로 배가 다닐 수 있는지를 구분하였다. 도로는 직선으로 10리마다 눈금이 있다. 눈금의 간격은 지형의 경사 등에 따라 달라진다. 행정 경계는 점선으로 표현했으며, 오늘날 지도처럼 다양한 기호를 활용하였다.



지도표		地		圖		標	
營衛	邑治	城池	鎮堡	驛站	倉庫	牧所	園
營在邑治則無標	城有	城有	城有	城有	城有	城有	城有
烽燧	陵寢	坊里	古縣	古驛	古城	道	各
始奉院舊圖內	城有	城有	城有	城有	城有	城有	城有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는 조선 시대 지도학의 모든 성과들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축척은 대략 1:16만 정도이다. 우리나라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120리 간격으로 나누어 전체를 22층으로 만들고, 각층은 80리 간격으로 끊어서 병풍처럼 접으로 만들었다. 22개의 접을 모두 연결시키면 가로 410cm, 세로 660cm 정도의 대형 전도가 된다. 표현 기법에서는 산지를 이어진 산줄기의 형태로 표현하여 산천을 통일적으로 인식하는 산수분합의 원리를 반영했다. 각종 범례의 사용과 더불어 도로에 10리마다 표시를 하여 지역 간의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내륙의 산천에서 도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영토가 지닌 개성적 면모를 세밀하게 표현함은 물론, 예술적 아름다움까지 갖춘 조선 시대 지도의 최고 걸작품 중의 하나이다.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김정호, 1861년, 목판본, 총 22첩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접혀 있는 형태의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 목판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

한반도 동쪽의 바다 이름인 동해와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는 고지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동해라는 명칭은 고구려의 광개토태왕릉비를 비롯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다양한 문헌 자료에서 볼 수 있지만, 일부 고지도에도 수록되어 있다. 고지도에 표기된 동해 지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아국총도」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아국총도」는 아름다운 채색이 돋보이는 소형 전도로서 '동해'가 '서해', '남해'와 더불어 바다에 표기되어 있다. 또한 「천하도지도」에는 조선의 주변에 '소동해(小東海)', '소서해(小西海)'라는 바다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동해와 더불어 독도도 다양한 고지도에 표현되어 있다. 조선 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于山島)'라 칭했는데, 조선 전도를 비롯하여 조선 후기의 군현 지도책에 수록된 울릉도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지도에는 독도인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지지만 조선 후기에는 울릉도의 동쪽으로 방위가 수정되어 그려졌다. 이는 안용복 사건을 거치면서 독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지도에 반영된 결과이다.

독도가 그려진 군현 지도책으로는 18세기의 「조선지도」가 대표적이다. 이 지도는 전국 각지의 군현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만든 지도이다. 울릉도의 동쪽으로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전 시기 회화적 기법을 가미한 지도에 비해 울릉도 본섬에서 더 떨어져 있다. 19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좌전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만날 수 있다. 울릉도 옆에 부속 도서의 형태로 우산도를 작게 그렸는데, 산봉우리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아울러 울진에서 이어지는 해로의 모습도 보이며, 그 옆의 여백에는 울릉도의 연혁과 지리에 관한 글이 기재되어 있다.



「아국총도」의 동해 부분



「천하도지도」의 조선 부분



「해좌전도」의 울릉도, 독도 부분



「조선지도」의 울릉도 지도

동해 지명이나 독도는 서양의 고지도에도 표현되어 있다. 서양 지도에서 조선이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로, 처음에는 섬의 형태로 표현되다가 차츰 반도의 형태로 제 모습을 갖추나가게 된다. 이들 지도에 조선의 동쪽 바다는 한국해 또는 동해 명칭으로 표기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세닉스(Senex)가 1720년에 제작한 「아시아 지도」



세닉스의 「아시아 지도」의 대한민국 부분



다카하시의 「일본변계략도」의 동해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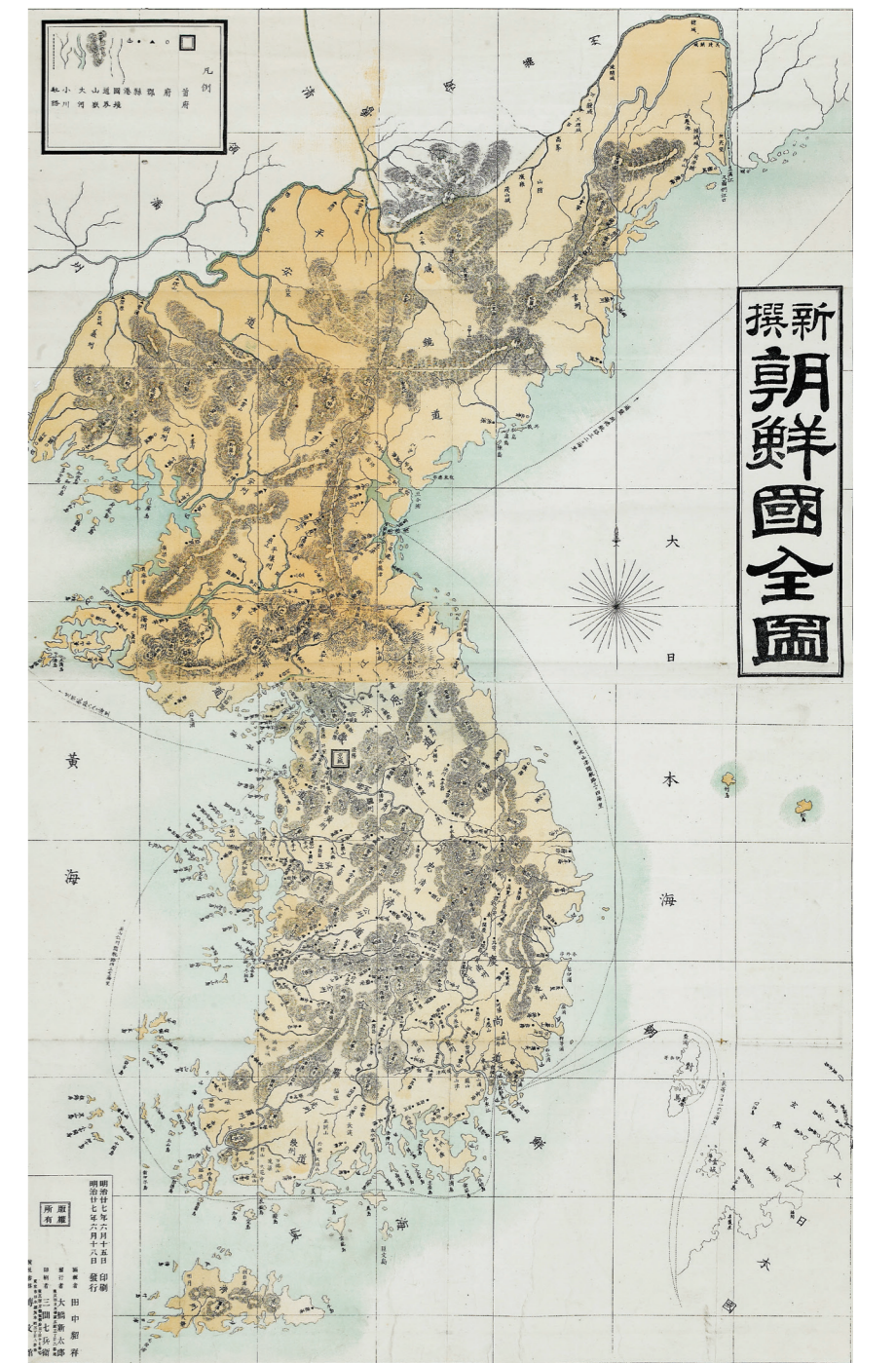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현한 것은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서도 확인된다. 1894년 다카 아키요시(田中紹祥)가 제작한 「신찬조선국전도(新撰朝鮮國全圖)」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죽도(竹島)와 송도(松島)로 표기되어 있고, 한반도와 동일한 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는 일본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동해 명칭도 일본의 지도에서 볼 수 있는데, 다카하시 가게야스가 1809년에 제작한 「일본변계략도(日本邊界略圖)」가 대표적이다. 이 지도에서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고, 울릉도와 우산도를 '울릉도(苑陵島)', '천산도(千山島)'로 표기하여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다. 이 지도에서 우리나라는 'K(ingdom) of Corea'로, 동해는 'The Eastern Sea(동해)' 또는 'Corea Sea(한국해)'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1735년 당빌(D'Anville)의 「조선왕국전도」에서는 조선이 처음으로 상세하게 표현되었는데, 울릉도(Fan-ling-tao)와 우산도(Tchian-chan-tao)도 동해안에 표기되었다.



당빌의 「조선왕국전도」의 울릉도, 독도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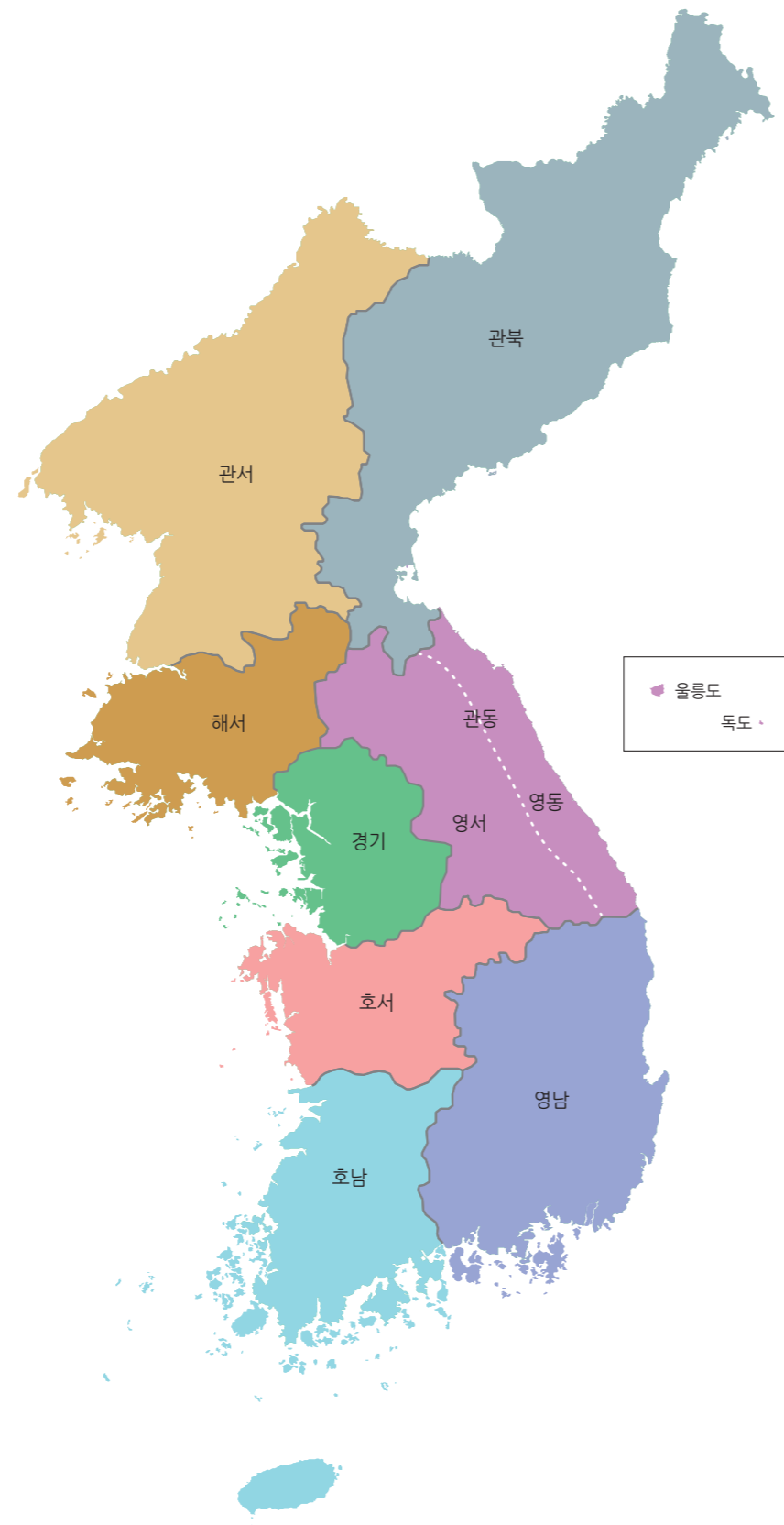
다나카의 「신찬조선국전도(新撰朝鮮國全圖)」

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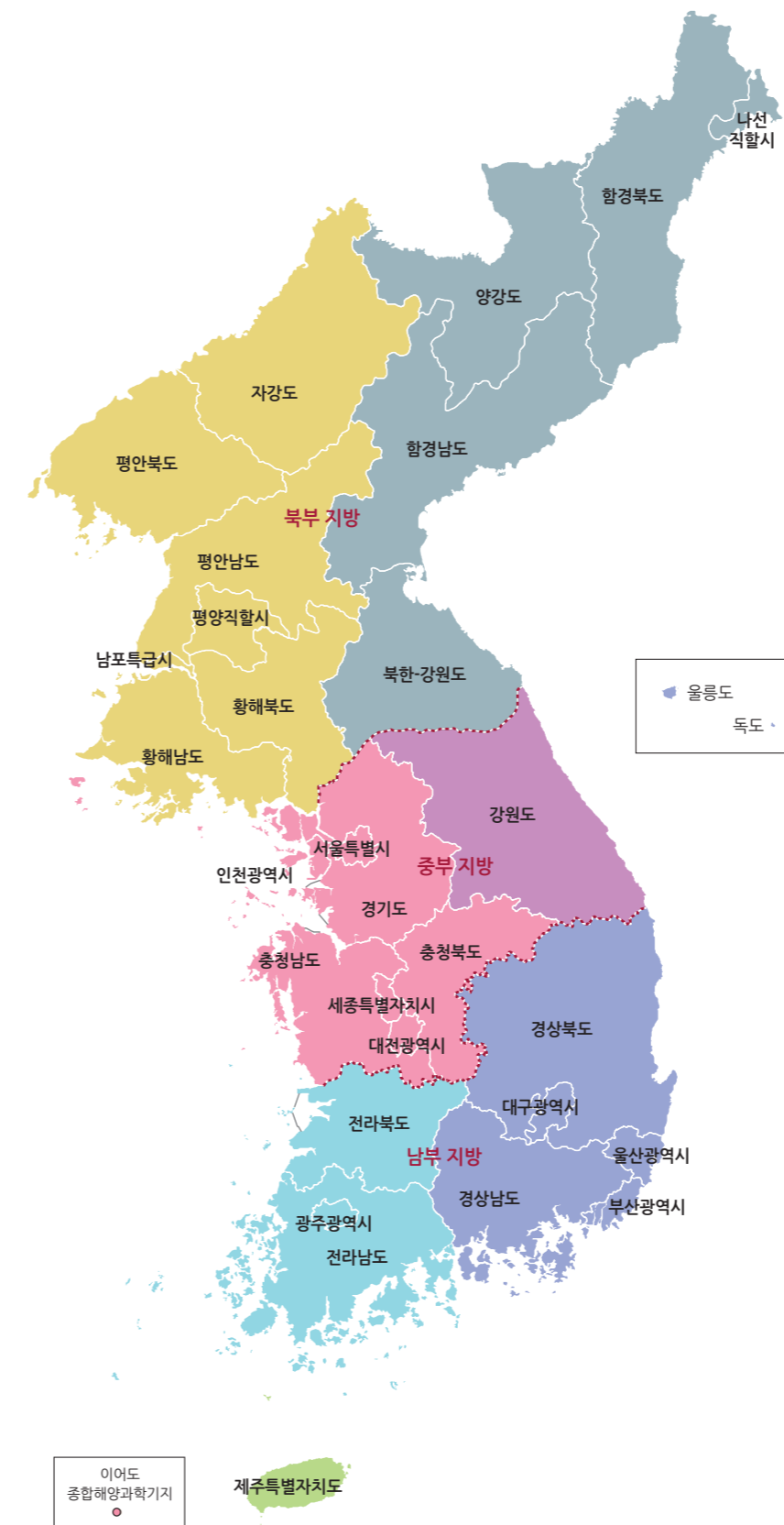
하천 기준 유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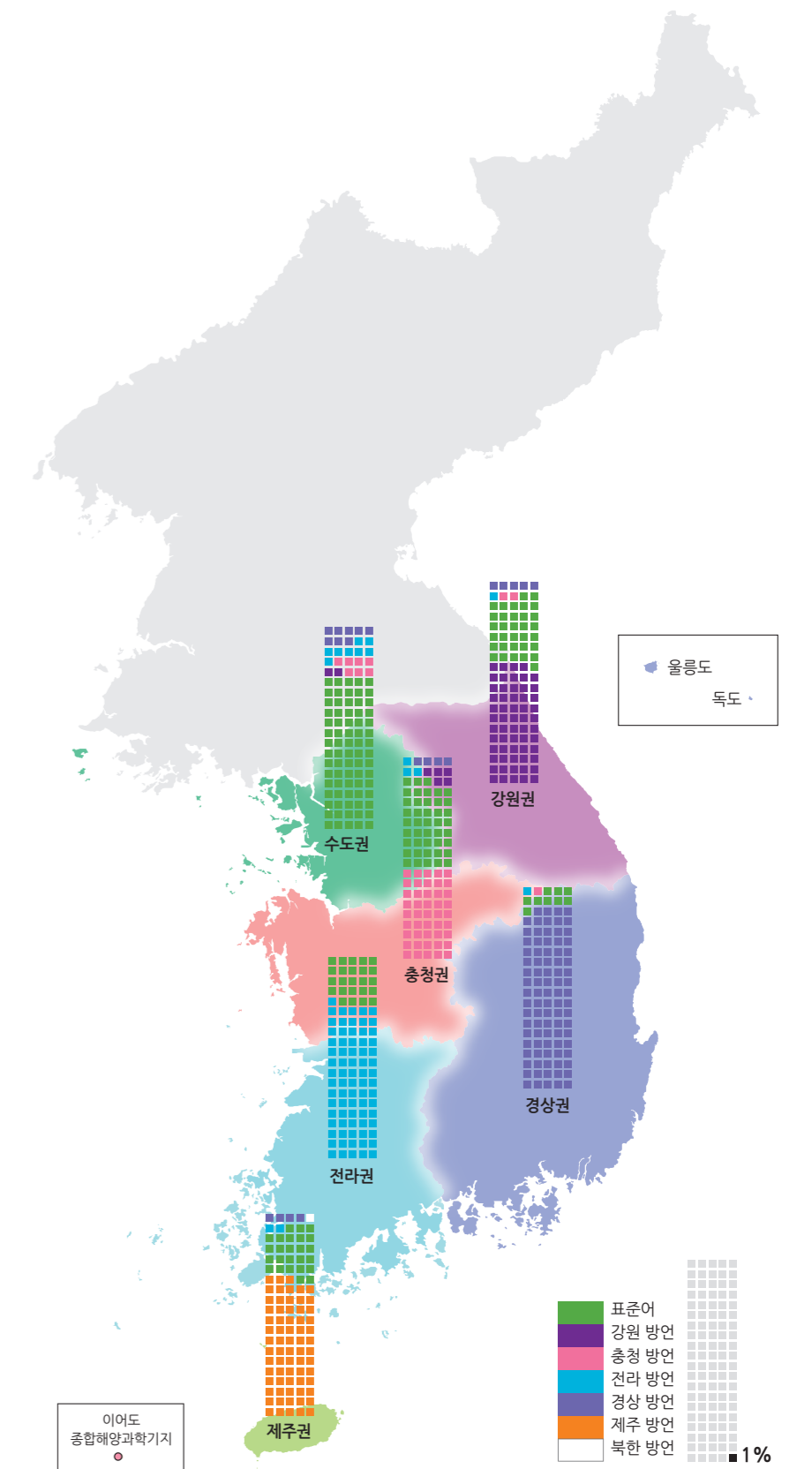
전통적 지역 구분(조선 시대)



현대의 지역 구분



방언 사용 인구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은 산과 강의 분포로 생활권 단위의 지리적 구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고려 시대 이후 정립된 행정 구역은 현재 우리나라 행정 구역의 근간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역 구분은 기본적으로 산과 강의 분포와 크게 관련 있다. 산과 강의 분포는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행정 구역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 구분은 크게 행정적 구분과 지리적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적 구분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정하는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고, 지리적 구분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통적 지역 구분에서 각 지역의 명칭은 고려 시대와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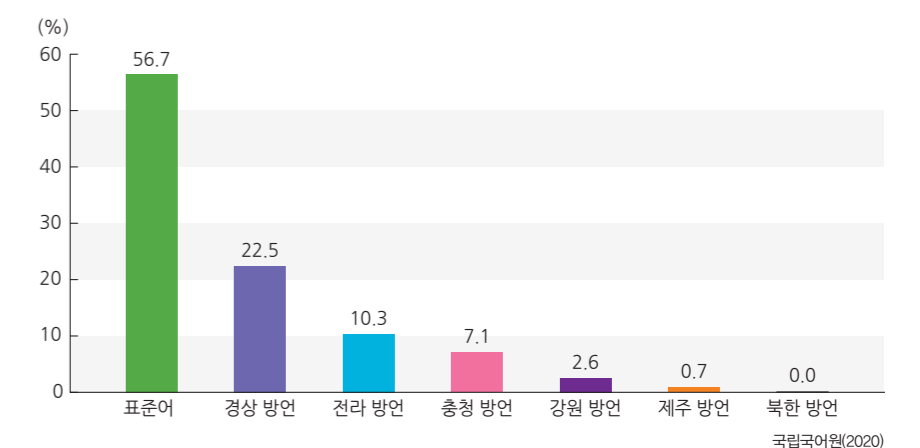
시대의 행정 구역과 관련이 깊다. 관서 지역은 조선 시대 행정 구역 기준으로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며, 관북 지역은 함경도, 관동 지역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관동 지역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다시 동서로 나누어 서쪽을 영서, 동쪽을 영동으로 인식하였다. 해서 지역은 황해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며, 경기 지역은 한양을 포함한 경기도를 의미하였다. 호서 지역은 충청도를, 호남 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영남 지역은 소백산맥을 경계로 조령의 남쪽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크게 북부, 중부, 남부 지방으로 구분된다. 현대적인 지역 구분으로 북부 지방은 휴전선 북쪽의 북한 지역 전체를 의미한다. 중부

지방은 수도권, 충청도, 강원도를 말하며, 남부 지방은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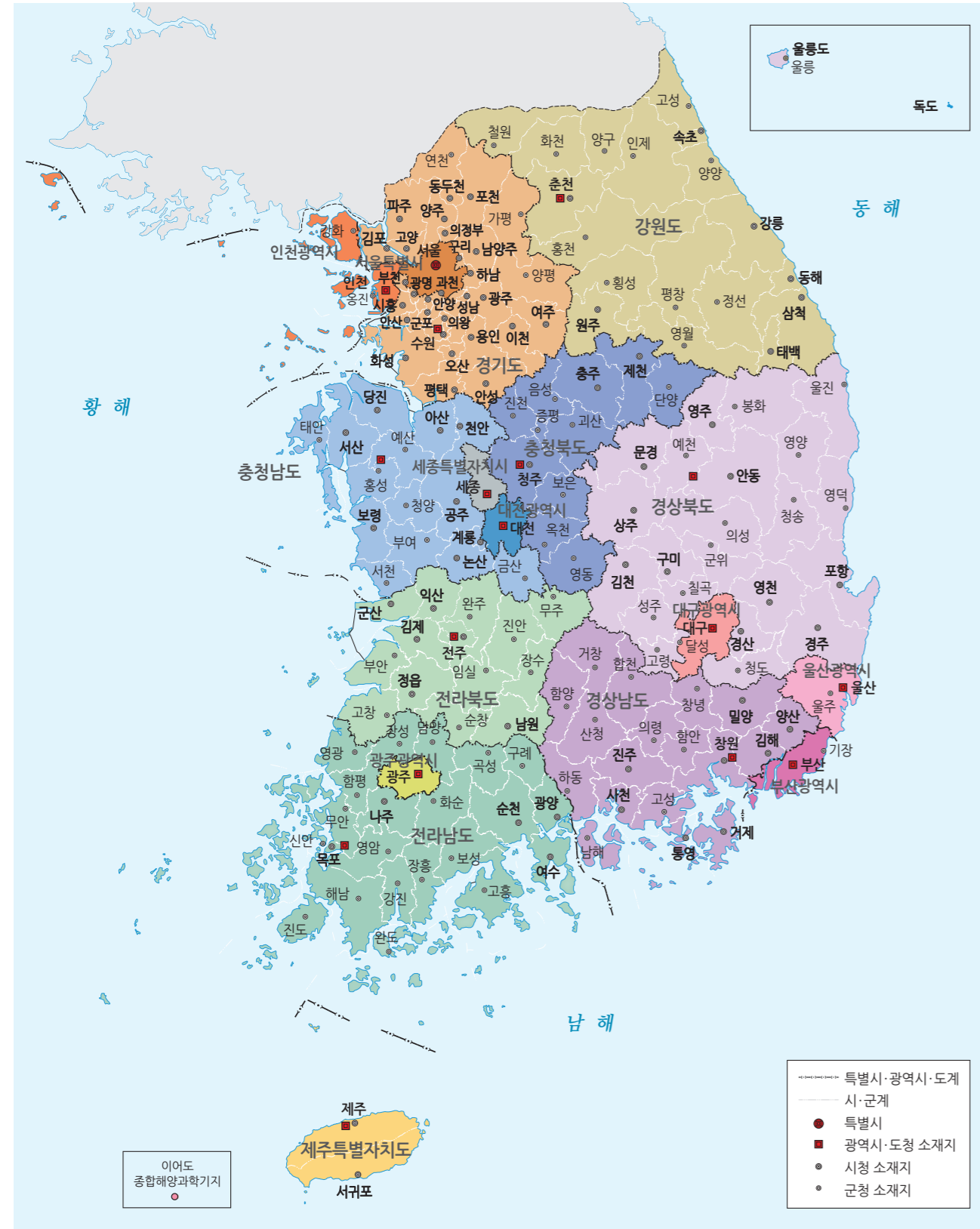
교통의 발달로 지역 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생활에 여전히 남아 있는 방언은 지역 구분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2020년 수행된 국립국어원의 국민 언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표준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56.7%로 가장 높고, 경상 방언 22.5%, 전라 방언 10.3%, 충청 방언 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해당 지역 방언 사용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방언 사용 인구 비율



행정 구역 변화

2020년의 행정 구역



행정 구역은 지방 행정을 위한 공간 단위면서 동시에 지역적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삶의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수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 단위를 일치시켜 왔다.

1945년 우리나라의 행정 구역은 1개의 특별시, 15개의 도, 23개의 부, 218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듬해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고, 1948년 부가 시로 일괄 개칭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행정 구역 개편은 주로 시 지역의 인구 증가와 교외화 등으로 인한 도시 확장에 기인한다.

도시의 증가

1970년 시 현황

서울, 부산, 인천, 군산, 목포, 대구, 창원(마산), 대전, 전주, 광주, 진주, 청주, 춘천, 익산(이리), 수원, 여수, 순천, 포항, 김천, 제주, 강릉, 경주, 동명(충무), 원주, 창원(진해), 충주, 울산, 의정부, 천안, 안동, 속초, 사천(삼천포)

1970년대

안양, 성남, 부천, 구미, 동해, 창원(창원), 제천, 영주

1980년대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광명, 김제, 남원, 나주(금성), 영진, 김해, 서귀포, 구리, 과천, 안산, 삼척, 광주, 보령(대천), 아산(은양), 상주, 하남, 서산, 오산, 의왕, 광양(동광양), 경산, 밀양, 거제(장승포), 군포, 시흥, 남양주(미금), 문경(점촌), 평택(송탄), 동두천, 태백, 정읍(정주)

1990년대

울산, 고양, 파주, 이천, 용인, 논산, 양산, 안성, 김포

2000년대

화성, 광주, 양주, 포천, 계룡, 마산·진해(창원시와 통합), 제주·서귀포(행정시로 변경)

2010년대

세종, 당진, 여주

1995년에는 대폭적인 지방 행정 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며 도시와 도시의 배후지인 군 지역을 통합하였다. 성장하는 도시와 쇠퇴하는 농촌 배후 지역의 균형 발전, 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의 확보, 행정의 효율성 제고, 생활권과 행정 구역의 불일치 해소 등을 목적으로 도농 통합시가 설치되었다. 또한 직할시는 인접 지역을 통합하여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이후

1997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었고, 2006년에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다. 2012년에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은 총 17개 광역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광역 자치 단체

면적	223,626km ² (남한 100,412km ²)(2020년 12월 기준)
인구(남한)	51,829,136명(2020년 12월 기준)
행정 구역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1 서울특별시
인구: 9,586,195명
면적: 605.2km²

2 부산광역시
인구: 3,349,016명
면적: 770.1km²

3 대구광역시
인구: 2,410,700명
면적: 883.5km²

4 인천광역시
인구: 2,945,454명
면적: 1,065.2km²

5 광주광역시
인구: 1,477,573명
면적: 501.1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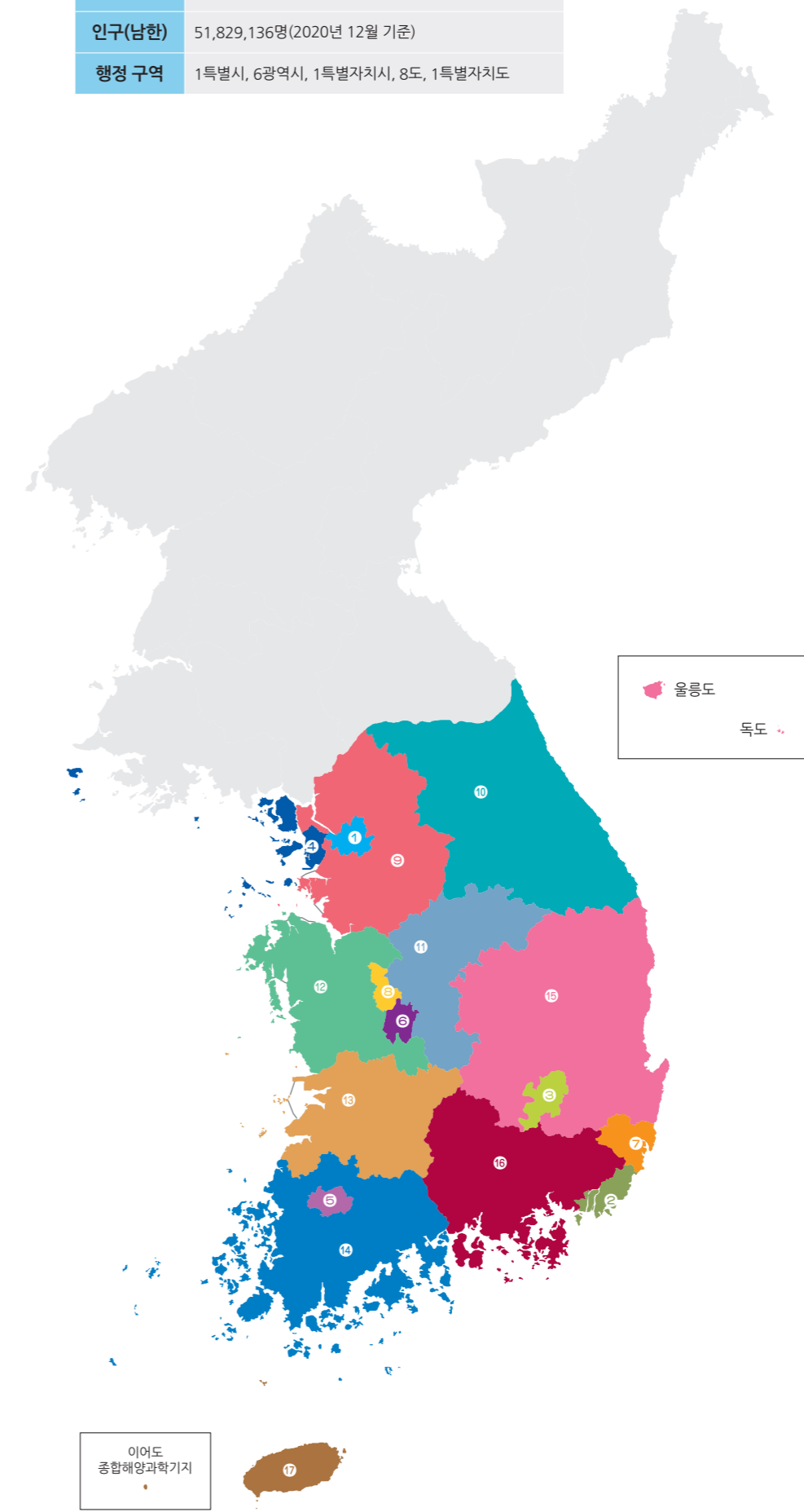
6 대전광역시
인구: 1,488,435명
면적: 501.1km²

7 울산광역시
인구: 1,135,423명
면적: 1,062.1km²

8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353,933명
면적: 464.9km²

9 경기도
인구: 13,511,676명
면적: 10,195.3km²

10 강원도
인구: 1,521,763명
면적: 16,829.7km²



17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670,858명
면적: 1,850.2km²

16 경상남도
인구: 3,333,056명
면적: 10,540.6km²

15 경상북도
인구: 2,644,757명
면적: 19,034.0km²

14 전라남도
인구: 1,788,807명
면적: 12,348.1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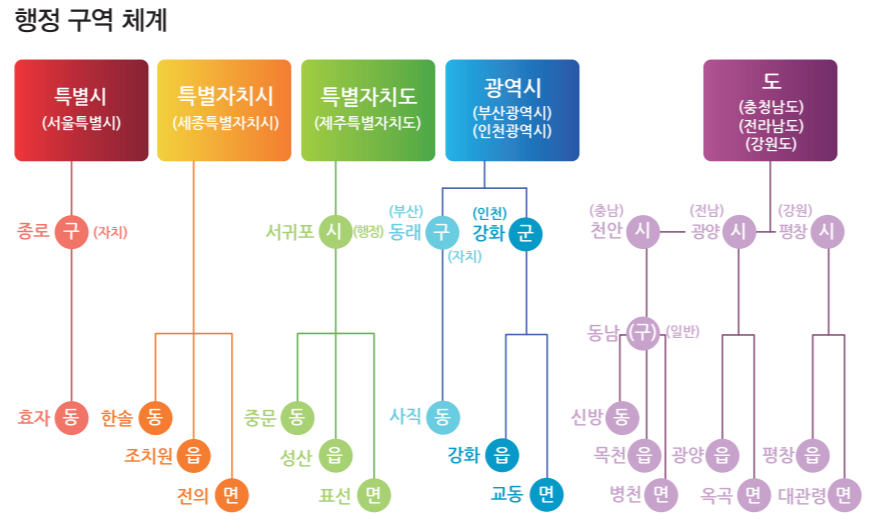
13 전라북도
인구: 1,802,766명
면적: 8,069.8km²

12 충청남도
인구: 2,176,766명
면적: 8,246.2km²

11 충청북도
인구: 1,632,088명
면적: 7,407.0km²

도시의 발전과 행정 구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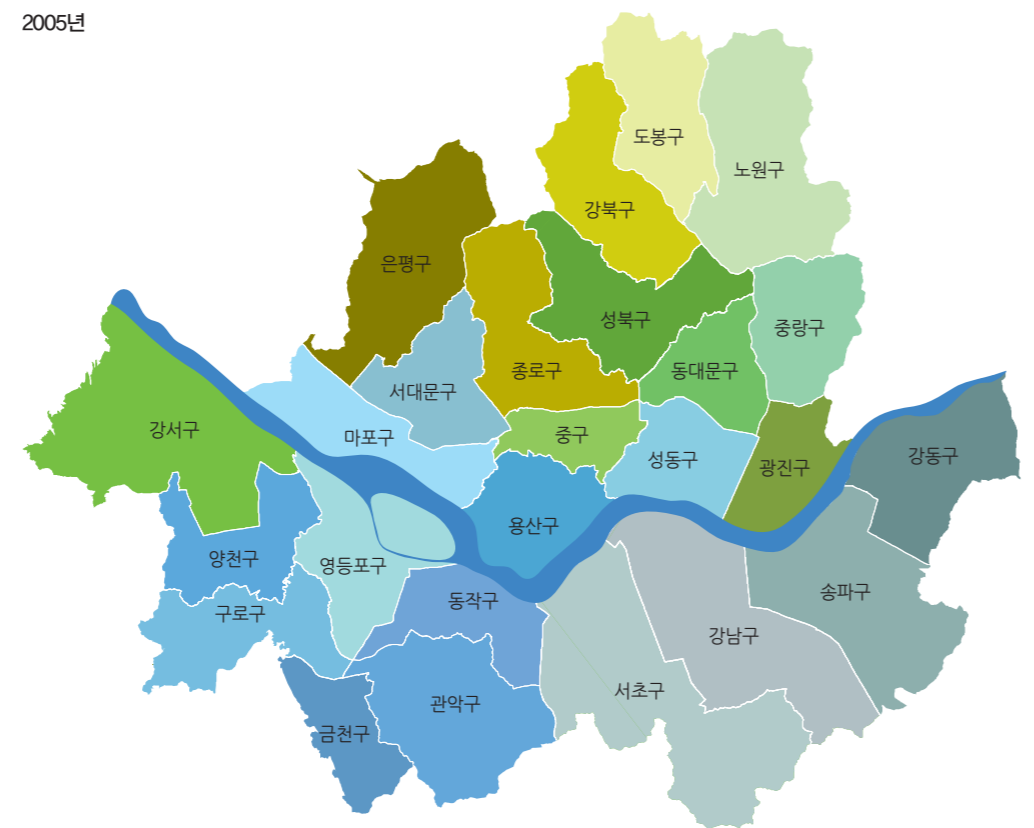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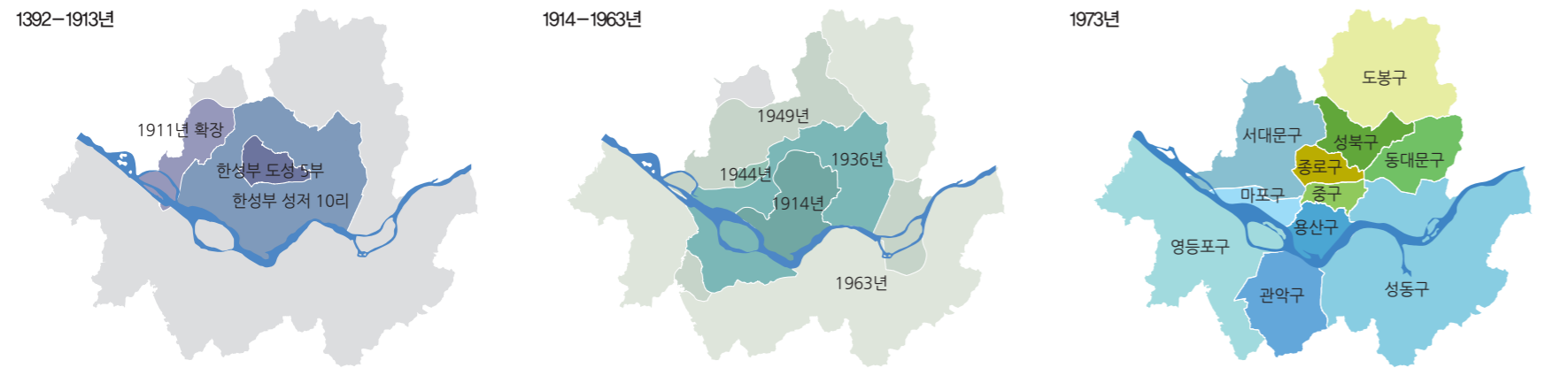
서울은 근대 이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공간적 확장을 경험하였다. 조선 시대 서울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정치·행정 중심인 한성부 도성 5부와 도성의 외곽 지역인 성저 10리로 이루어진 도시였으며, 19세기 말에는 인구가 약 20만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 강점기에 철도가 부설되고 전차 노선이 건설되면서 서울의 공간적 범위는 성곽을 넘어 확장되었다. 서울의 인구는 광복 직후 90만 명 정도였으며, 해의 동포의 귀국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170만 명으로 성장하였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이 서울 및 수도권과 동남권 해안 지역에 집중되었고, 도시의 발전에 따라 행정 구역도 변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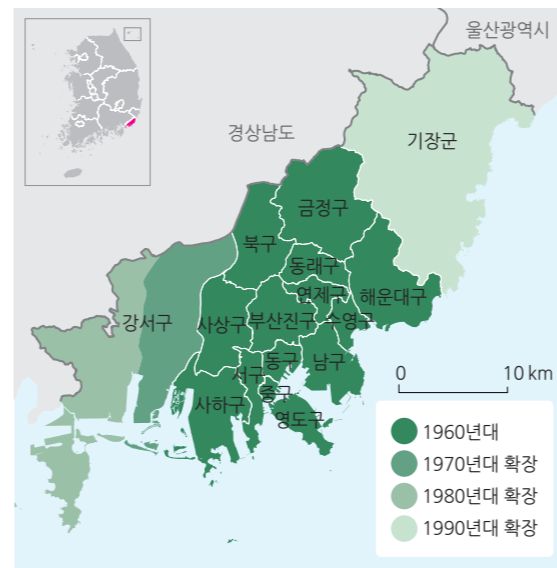
갔다. 2022년 현재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970만 명이 넘고, 행정 구역은 2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6개의 광역시 역시 인구와 면적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지방의 거점 도시인 광역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도에서 분리된 직할시로 승격되었다가, 1995년 주변 지역을 통합하여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200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승격되었다. 2012년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행정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며 도에 속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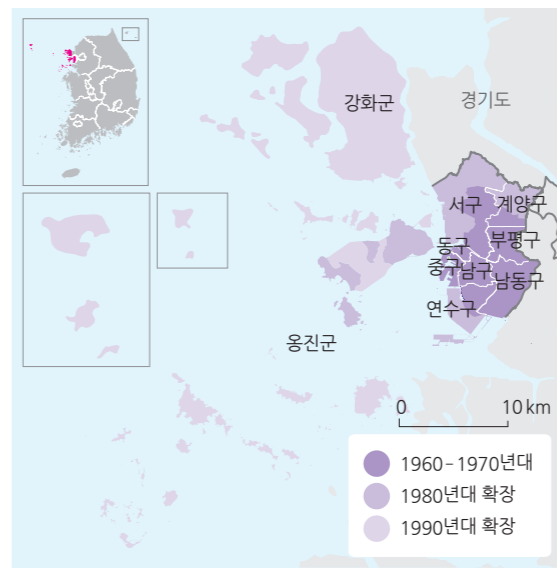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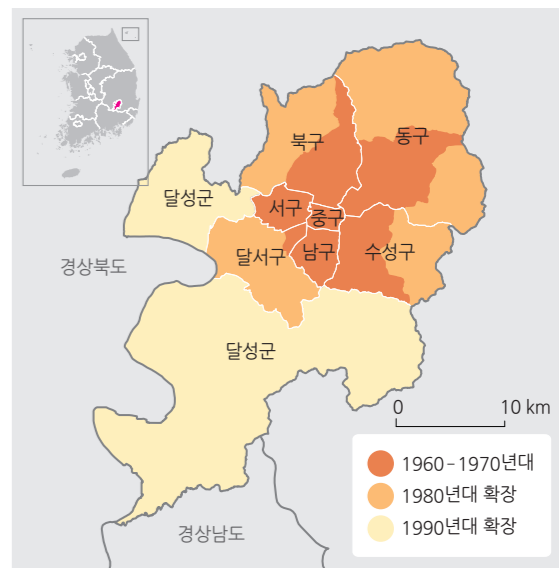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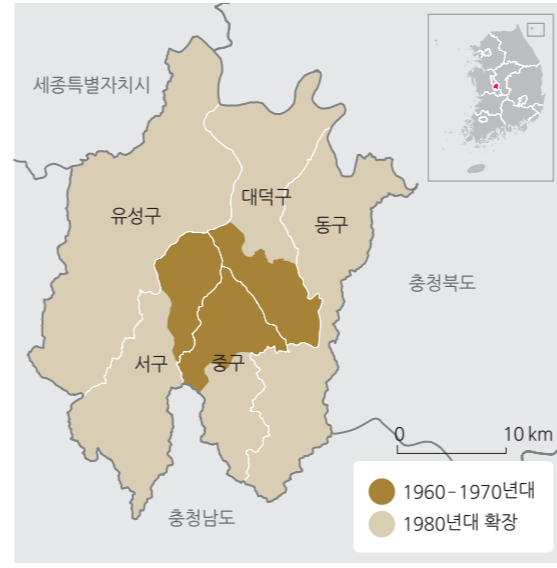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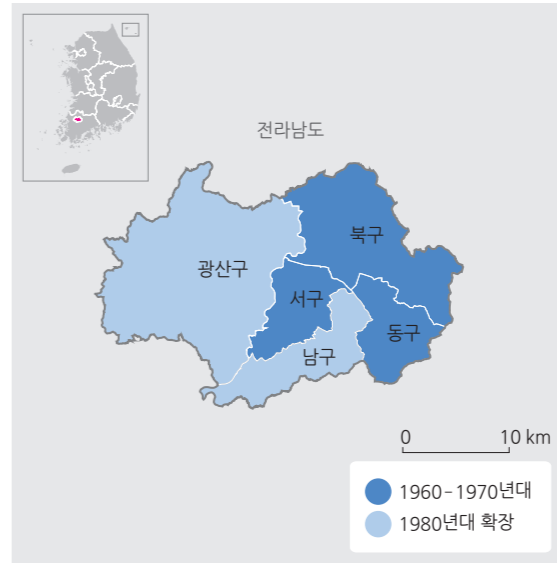
대구광역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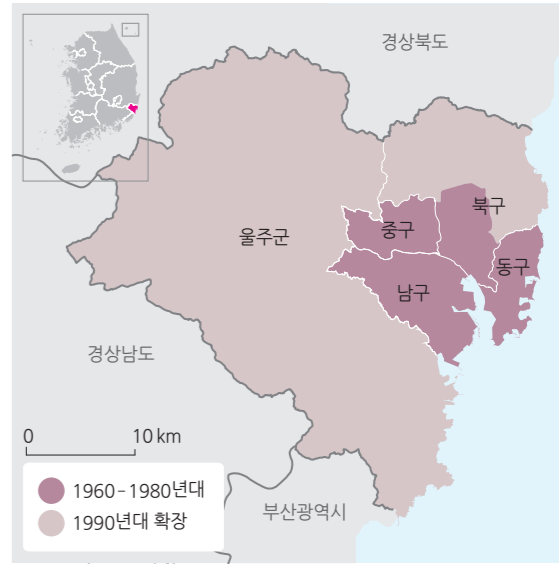
대전광역시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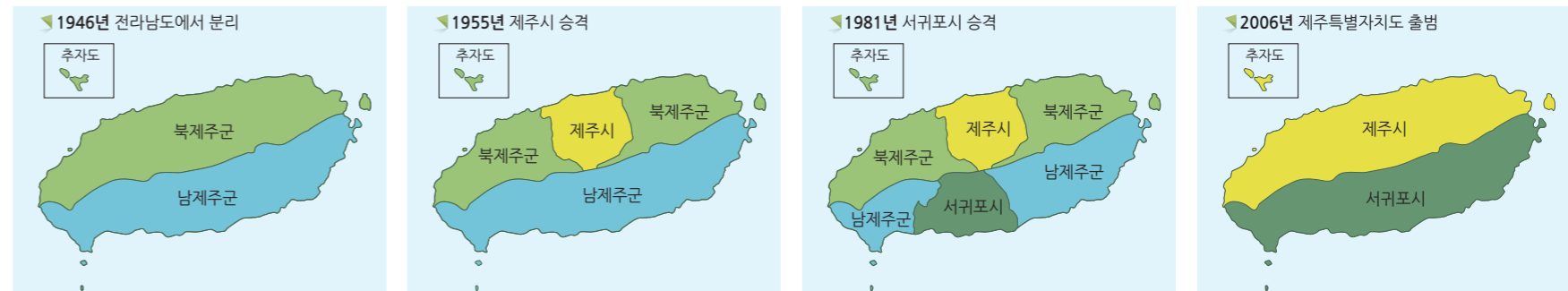
광주광역시의 확장



울산광역시의 확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구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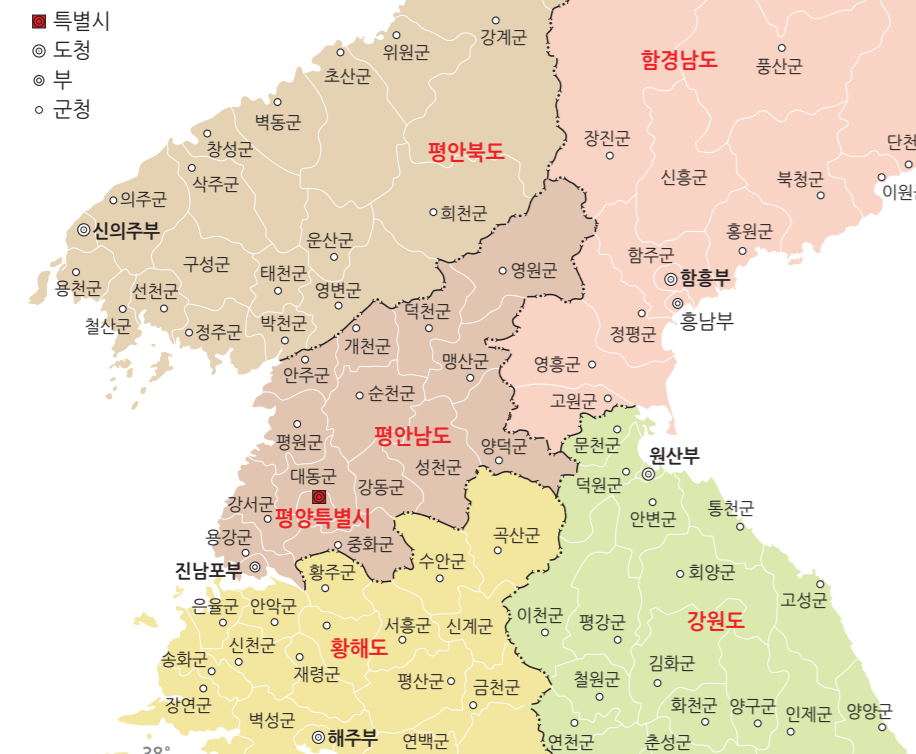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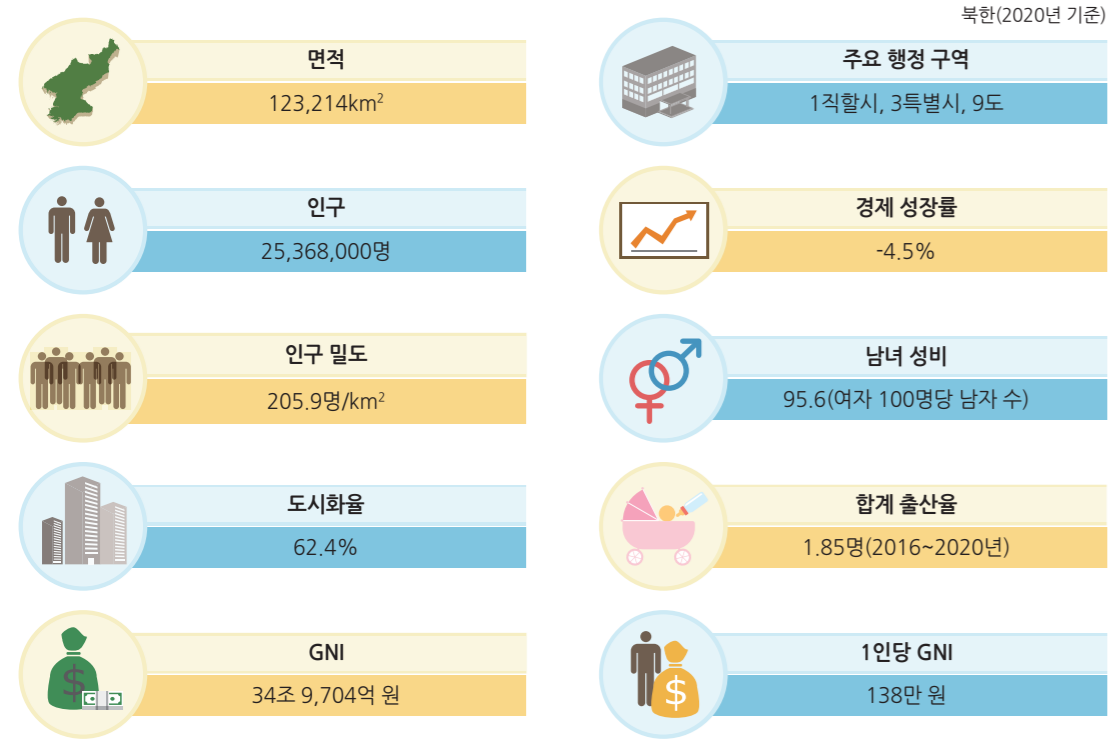
북한의 행정 구역

북한의 행정 구역

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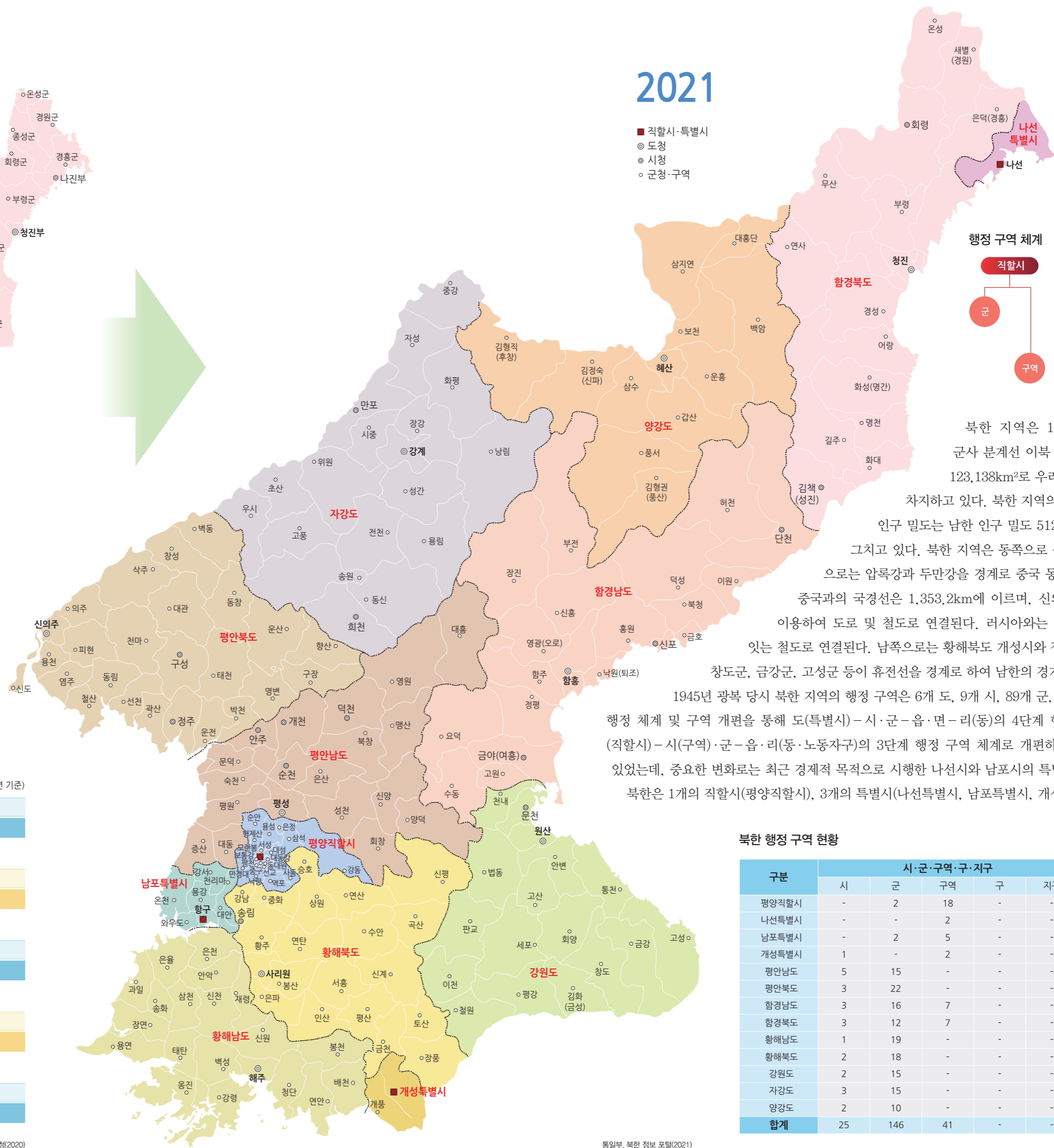
북한 지역 개괄



통계청(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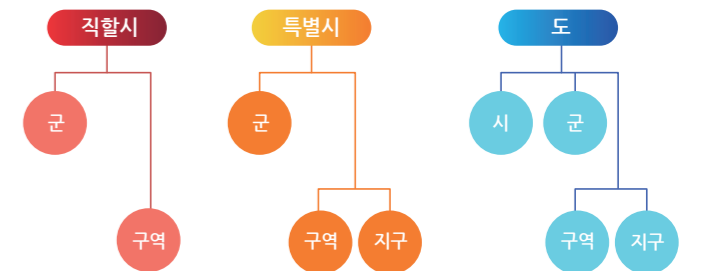
2021

- 직할시·특별시
- 도청
- 시청
- 군청·구역



통일부, 북한 정보 포털(2021)

행정 구역 체계



북한 지역은 1953년 7월 정전 협정 체결로 설정된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을 말한다. 북한 지역의 전체 면적은 123,138km²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 223,516km²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지역의 인구는 2017년 현재 약 2,501만 명이고, 인구 밀도는 남한 인구 밀도 512.6명/km²의 40% 수준인 203.1명/km²에 그치고 있다. 북한 지역은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황해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동북 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와 접해 있다. 중국과의 국경선은 1,353.2km에 이르며, 신의주-단둥 구간의 압록강철교 등 교량을 이용하여 도로 및 철도로 연결된다. 러시아와는 16.2km를 접하고 있으며, 나선-하산을 잇는 철도로 연결된다. 남쪽으로는 황해북도 개성시와 장풍군, 강원도의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 등이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남한의 경기도 및 강원도와 접하고 있다.

1945년 광복 당시 북한 지역의 행정 구역은 6개 도, 9개 시, 89개 군, 810개 읍·면이었다. 그러나 1952년 12월 행정 체계 및 구역 개편을 통해 도(특별시)-시-군-읍-면-리(동)의 4단계 행정 구역 체계에서 면을 폐지하였고, 도(직할시)-시(구역)-군-읍-리(동·노동자구)의 3단계 행정 구역 체계로 개편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중요한 변화로는 최근 경제적 목적으로 시행한 나선시와 남포시의 특별시 승격을 들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북한은 1개의 직할시(평양직할시), 3개의 특별시(나선특별시, 남포특별시, 개성특별시), 9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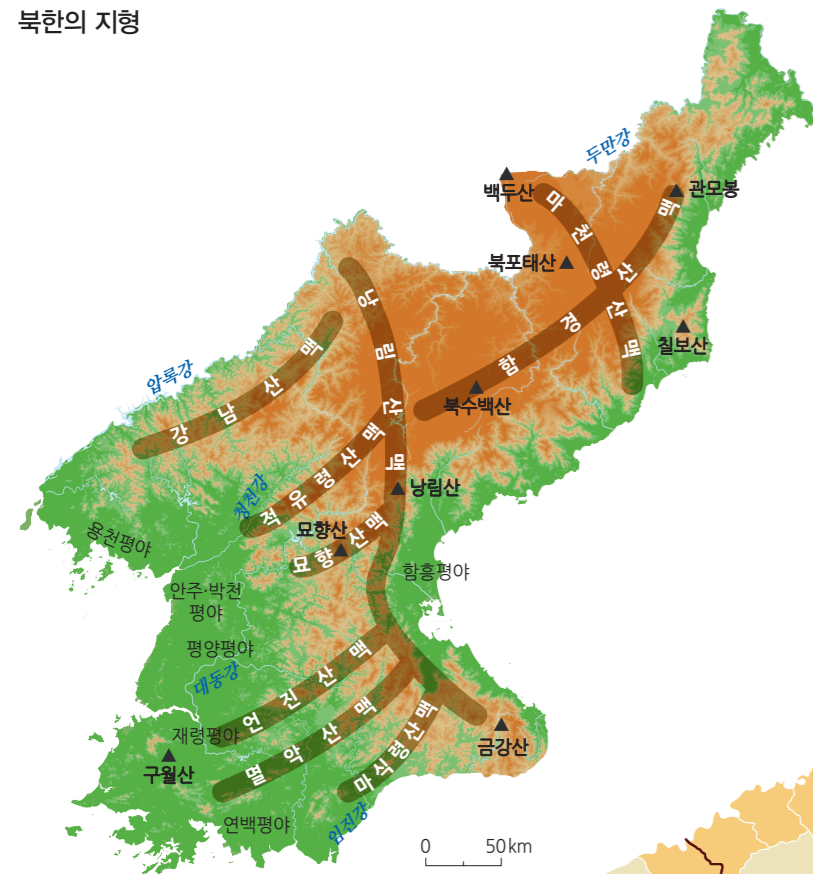
북한 행정 구역 현황

구분	시·군·구역·지구				읍·리·동·노동자구			
	시	군	구역	지구	읍	리	동	노동자구
평양직할시	-	2	18	-	2	80	290	12
나선특별시	-	-	2	-	-	-	35	-
남포특별시	-	2	5	-	2	50	76	7
개성특별시	1	-	2	-	-	33	31	-
평양남도	5	15	-	-	15	302	124	38
평양북도	3	22	-	-	22	423	87	44
함경남도	3	16	7	-	16	426	165	34
함경북도	3	12	7	-	12	242	140	51
황해남도	1	19	-	-	19	417	28	18
황해북도	2	18	-	-	18	328	51	16
강원도	2	15	-	-	15	321	61	10
자강도	3	15	-	-	15	205	70	25
양강도	2	10	-	-	10	129	33	43
합계	25	146	41	-	146	2,956	1,191	298

통계청(2021)

북한의 인구와 도시

북한의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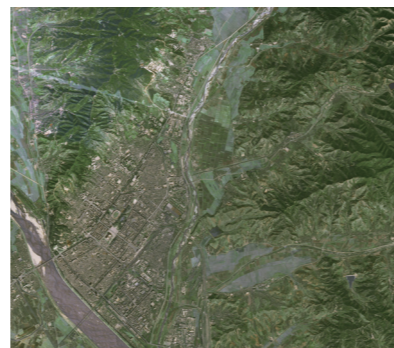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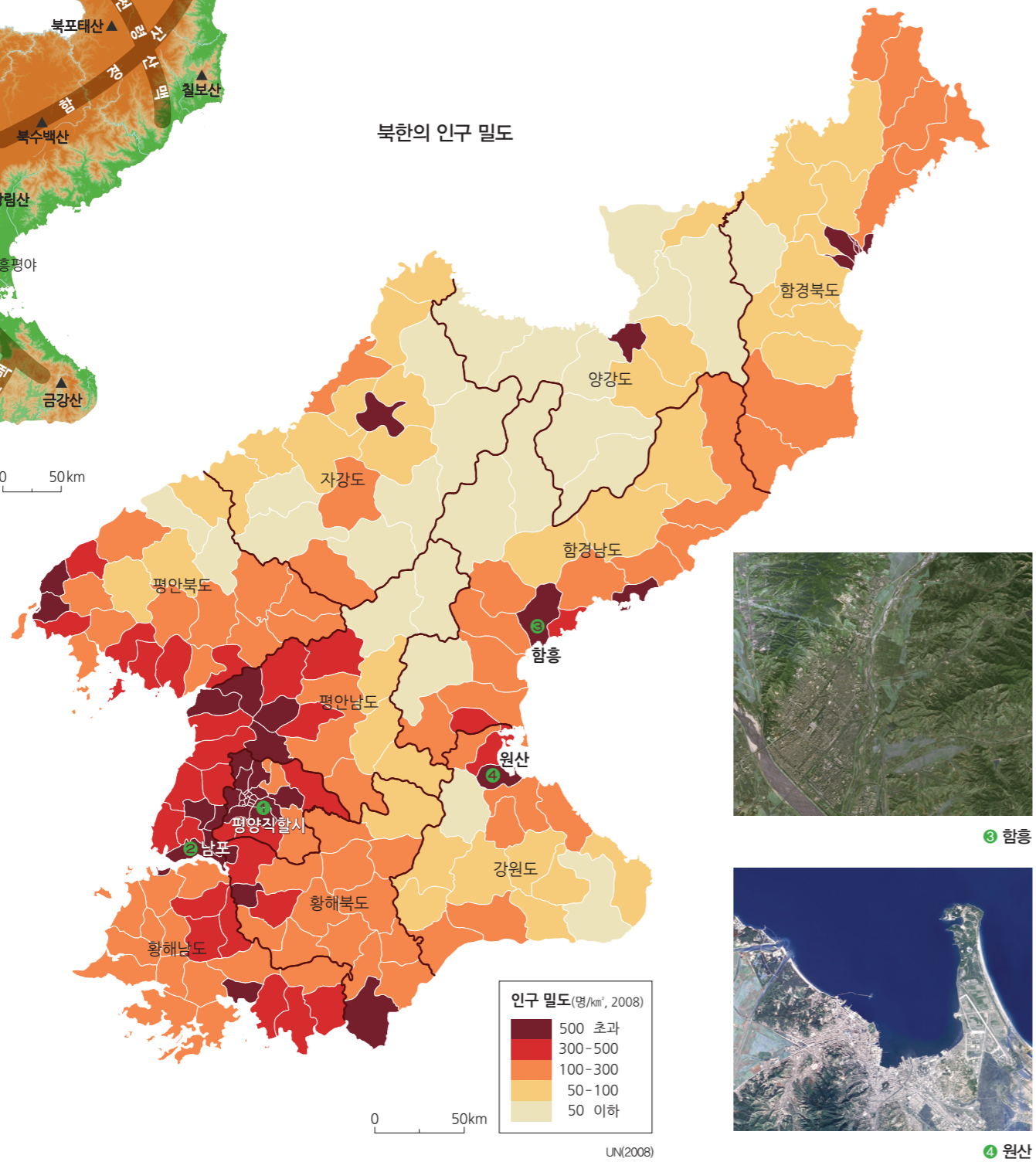
1 평양



2 남포

북한 지역의 인구 분포와 도시 발달은 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 지역의 지형을 보면 백두대간인 낭림산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묘향산맥 등이, 동쪽으로 함경산맥 등이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은 북부와 동부가 높고 남부와 서부로 갈수록 점차 낮아진다. 이러한 지형의 영향으로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예성강 등 황해로 흐르는 강 주변에 평양평야, 재령평야, 연백평야 등의 주요 평야 지대가 발달해 있다. 북한 지역의 인구는 이러한 평야 지대인 남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평양직할시를 중심으로 평안남도 지역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반면에 산악 지대가 많은 북동 지역(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은 혜산시, 청진시, 함흥시, 강계시 등 일부 도시와 동해 연안 지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이다.

북한의 인구 밀도



3 함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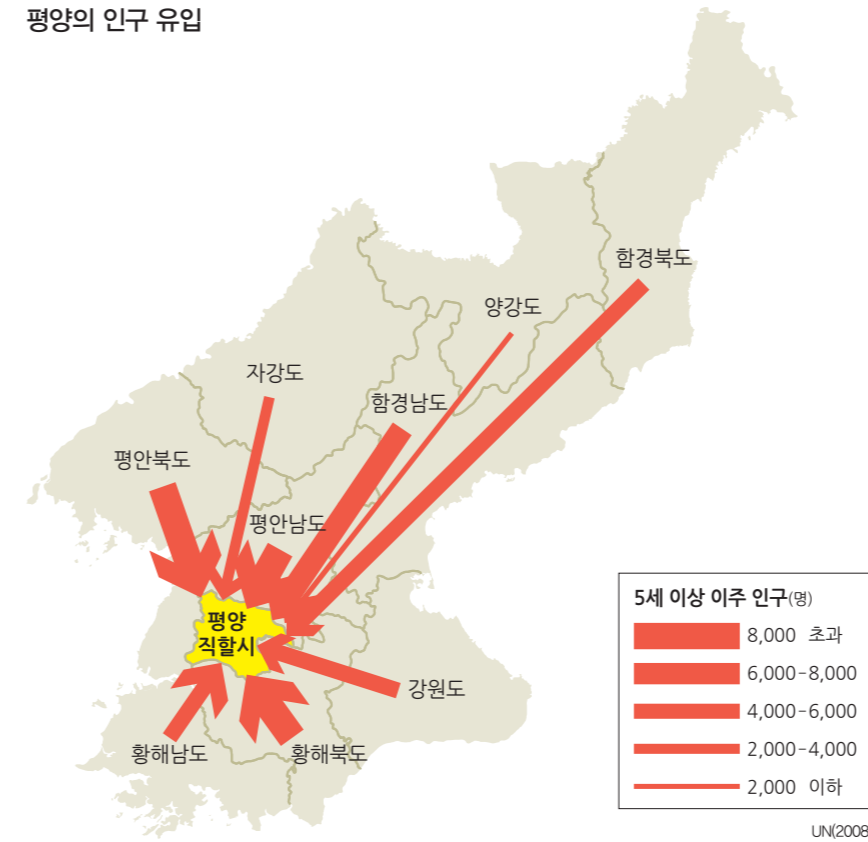


4 원산

2017년 현재 북한 지역은 총인구의 62%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북한 지역 도시 발달은 서부의 평양~남포와 동부의 함흥~청진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최대 도시는 평양직할시이며, 그 뒤를 함경북도 청진과 함경남도 함흥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백만 명 이상인 도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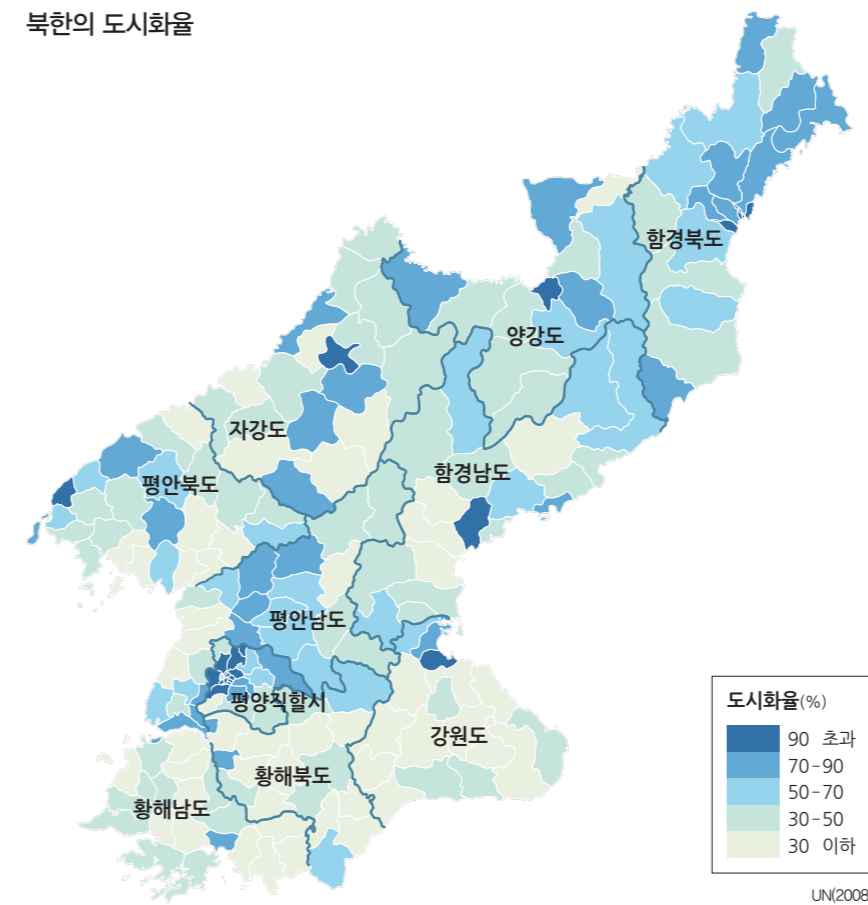
평양뿐이며, 50만 명 이상인 도시도 2곳에 불과하다. 도시화 과정을 살펴 보면, 북한 지역은 광복 이후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빠른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도시화율은 1953년 31%에서 1976년 56.7%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의 도시화 추세는 매우 더딘 상태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평양의 인구 유입



유엔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2008년 북한 지역의 5세 이상 이주 인구는 총 234,817명으로 전체 인구의 1%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북한의 지역 간 인구 이동이 활발한 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도별로 이동자

북한의 도시화율



평양시 려명거리 살림집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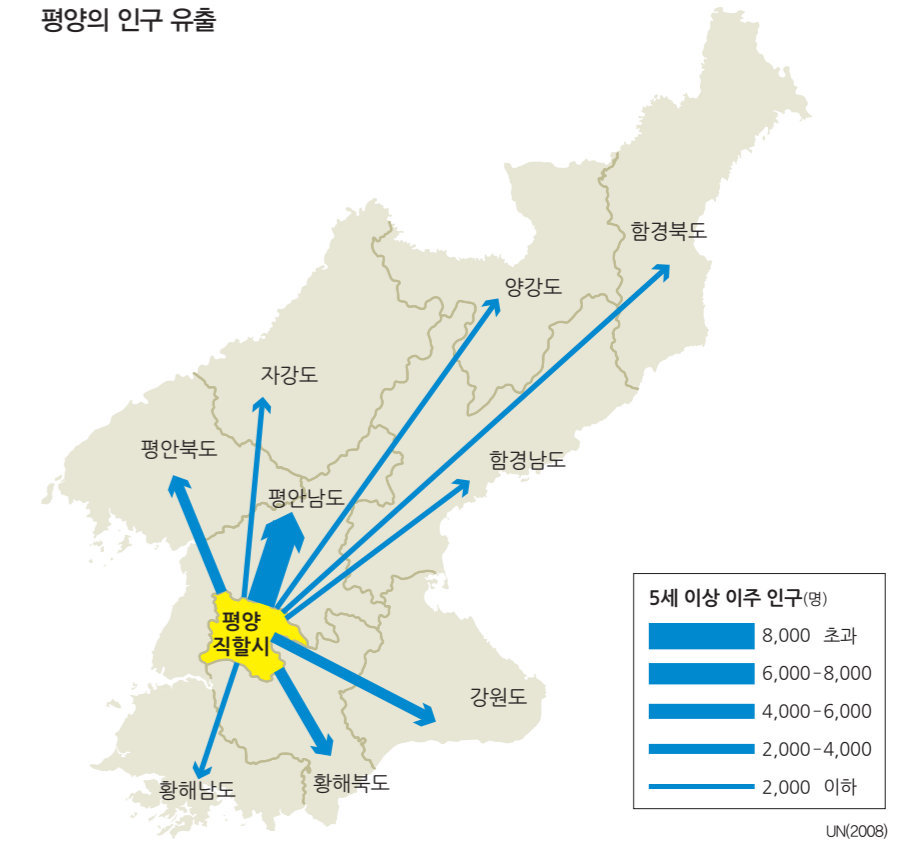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역 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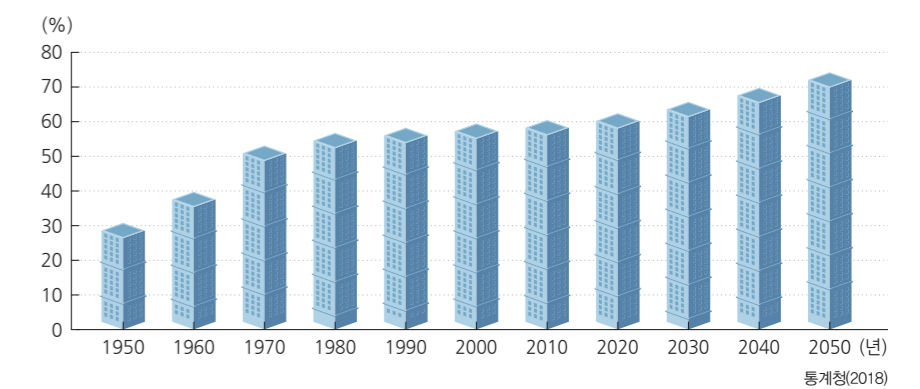
남포시 온천군 지역의 살림집

평양의 인구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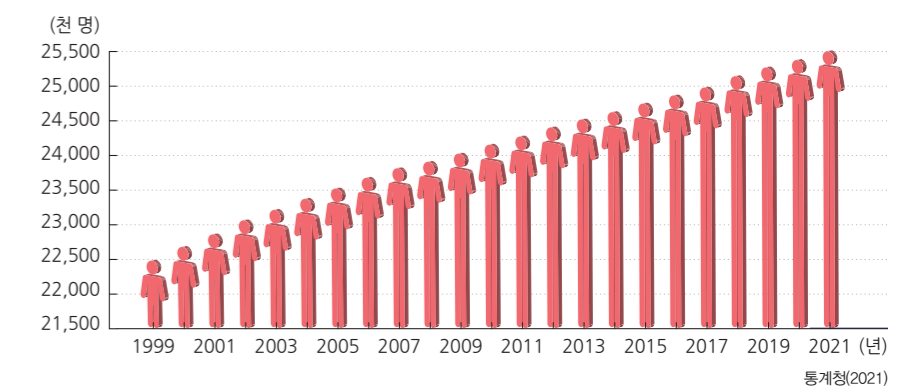


수를 살펴보면, 평양직할시와 평안남도의 이주 인구가 가장 많다. 특히 평양직할시는 북한 지역에서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으로, 북한 전체 전입 인구의 28.3%, 전출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도시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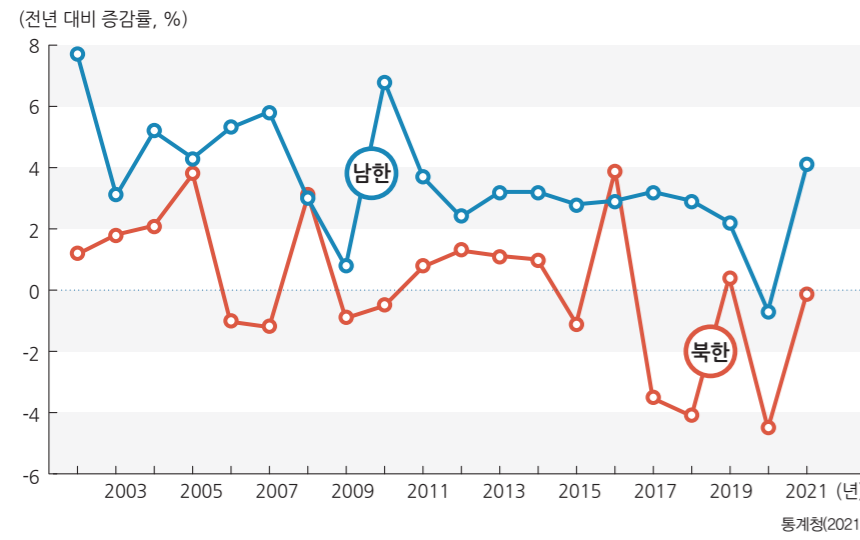


북한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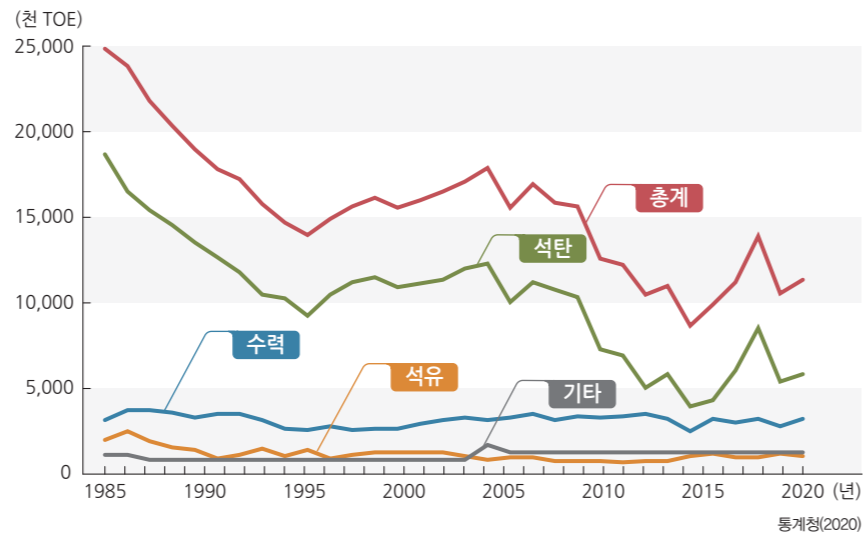
북한의 경제

북한의 경제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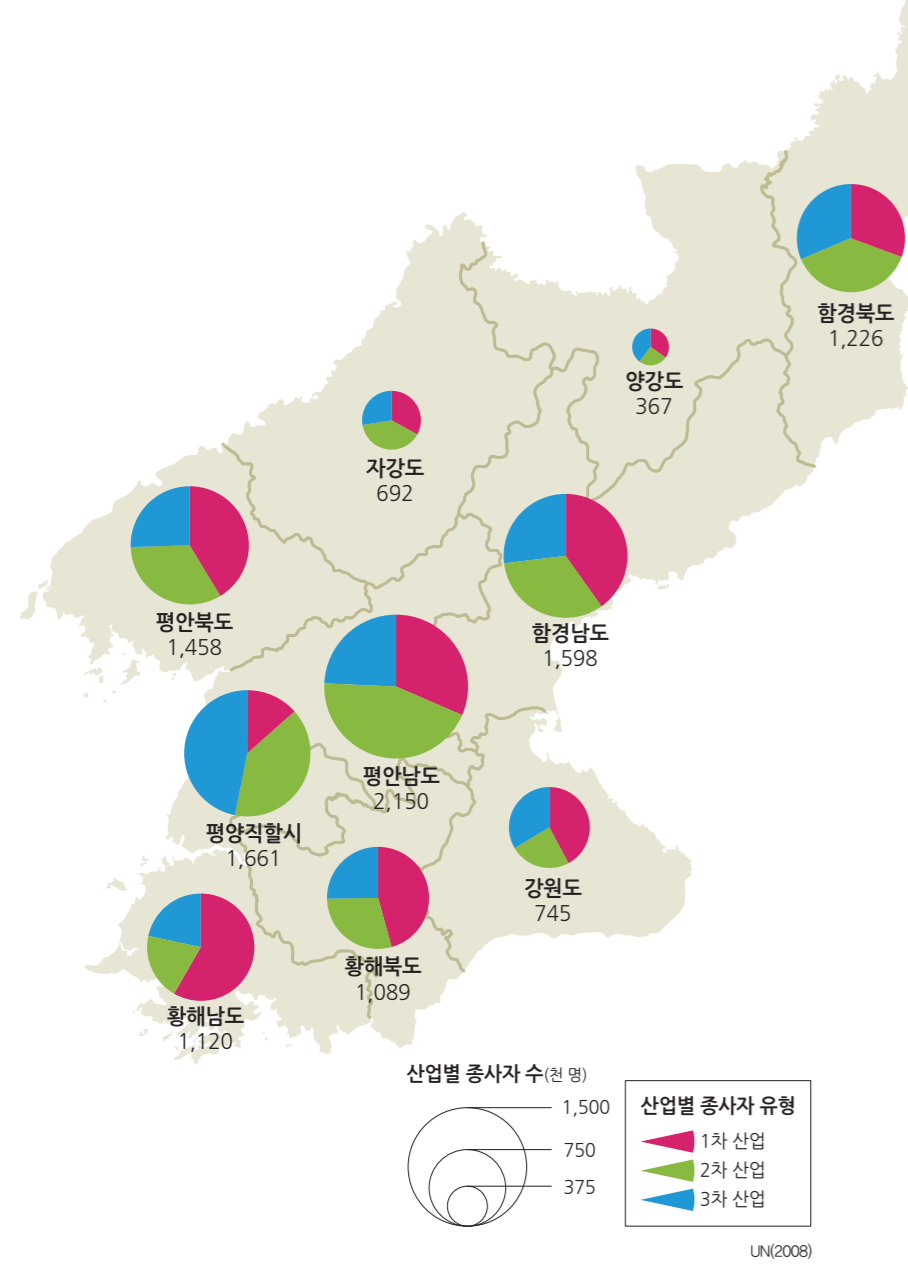


북한 지역의 경제는 정부 주도의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로, 중앙 정부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된 경제 개발 계획이 지방 정부와 공장 및 기업소 등의 하위 단위에서 엄격하게 집행되는 일원화된 경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 경제의 기초는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농업의 동시 발전'인데, 이 원칙은 한정된 자본과 자원으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중공업 우선 노선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은 북한은 1999년 이후 경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6년 이후 정체 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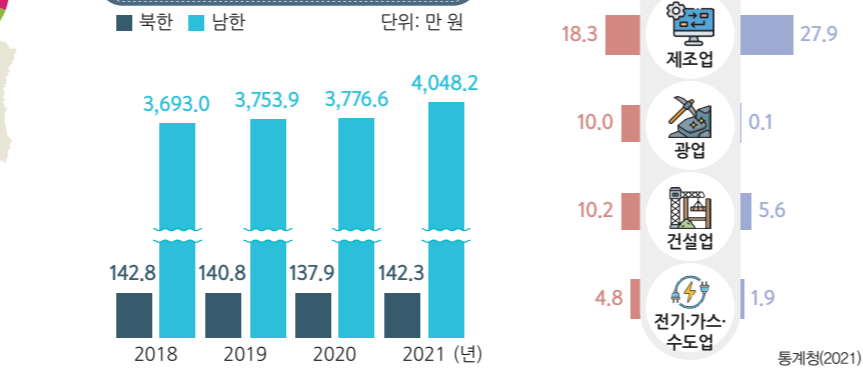
1차 에너지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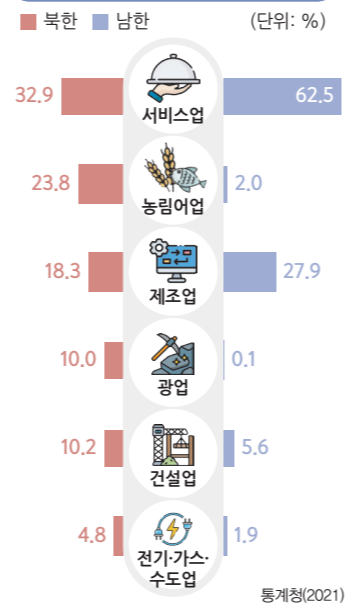
북한의 산업별 종사자 분포



1인당 국민 총소득



산업 구조 (2021)



2021년 기준 산업별 종사 인구를 보면, 서비스업 32.9%, 농림어업 23.8%, 제조업 18.3%, 광업 10.0% 순이다. 2008년 기준 산업별 종사자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곡창 지대인 황해남·북도에는 1차 산업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탄전과 북한의 주요 산업 시설이 입지한 평안남도는 2차 산업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점차 대외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1991년 최초로 나진·선봉 지역에 경제특구를 도입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의 유치에 힘썼으며, 2002년 신의주행정특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리지구 등의 지역을 경제특구로 발표하였다. 2010년대에는 나진·선봉경제특구를 특별시로 승격시켰고, 압록강에 위치한 황금평·위화도경제특구를 중국과 공동 개발 및 관리하겠다고 선포하였으며, 신의주를 새로운 특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북한의 경제특구



경제특구 정책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 더욱 본격화되었으며 그 대상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경제개발구는 중앙급과 지방급 개발구와 함께 공업, 농업, 관광, 수출 가공, 첨단 기술 등의 분야로 특화하여 개발 중이며, 기존의 경제특구를 포함해 총 27개의 특수경제지대를 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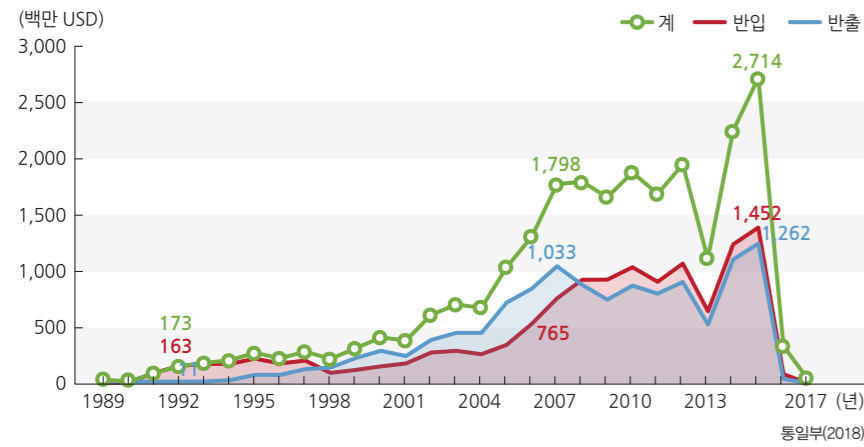
북한의 대표적 종합 시장

도	공식 시장 수
평양직할시	30
나선특별시	4
남포특별시	21
평안남도	65
평안북도	51
함경남도	48
함경북도	46
황해남도	34
황해북도	34
강원도	29
자강도	24
양강도	18
합계	404



남북 교류

남북 교역액 추이



남북한 교역 및 경제 협력 연혁



남북 정상 회담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10·4 남북 공동 선언(2007)

판문점 선언(2018)

9월 평양 공동 선언(2018)

남북 사회 문화 교류



개성 공단 사업 교역액 추이



금강산과 개성 관광객 추이

